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책임 연구자 : 김 태 성
박 선 영
공동 연구자 : 오 인 수
김 선 일
오 여 원
정 일 용
이 지 선



청소년상담연구 219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인 쇄 : 2020년 12월
발 행 : 2020년 12월

발 행 인 : 이기순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092 / F. (051)662-3006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일디앤피

비매품

ISBN 978-89-8234-831-0 94330

ISBN 978-89-8234-001-7(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간행사

최근 학교폭력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증가하면서 저연령화되고 있으며, 신체적 폭력보다는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과 같은 정서적 폭력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보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실제 대면보다는 사이버상의 만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학교에서의 폭력예방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의 문제점, 대응방법 등을 교육시켜 사이버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또래상담은 또래 청소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함입니다. 또래상담자들이 전문가와 같은 지식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예방 및 조기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의 습득으로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래상담 담당 실무자 선생님, 시범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또래상담 지도교사 및 또래상담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울러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공동연구자이신 이화여대 오인수 교수님과 본원 연구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에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이기순** 이 기 순

초 록

최근 초고속 인터넷 보급, 첨단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사소한 집안일은 물론 쇼핑, 카드 결제, 은행 업무, 교육 강좌 수강 등 많은 일을 스마트폰으로 처리하는 세상이 되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 확대는 그들의 문화를 빠르고 개성 있게 형성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독 및 그에 따른 부작용, 사생활 침해, 비행, 불법 도박,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역기능이 존재한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을 소외시키고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폭력은 아주 심각한 청소년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다시 사이버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폭력과 달리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하루 24시간 내내 괴롭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더욱 더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이 외에도 익명성, 방관성 등 사이버폭력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및 피해 발생시 개입방법은 많은 한계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영국의 자선단체 Beatbullying은 2009년 사이버멘토(Cyber mentors)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가상의 또래지지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사이버멘토는 사이버학교에서 실시하는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후 사이버불링에 대한 또래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 개입 및 교육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상담자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디지털 시민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또래 간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자 역량 개발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김창대 등(2011)이 제안한 프로그램 개발 3단계에 적용하였다. 기획단계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실태와 유형,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내외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이버폭력에 노출되었을 때의 심리적 어려움과 적절한 지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학계전문가 2명,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도교사 14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래상담 전문가 17명, 중학생 또래상담자 18명, 총 51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3회 실시하였다.

구성단계에서는 기획단계에서 수행된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구성원리와 운영원리를 도출한 후 프로그램의 세부내용과 활동지 등을 구성하고 프로그램 초안을 마련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원리 및 운영원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본 프로그램은 솔리언 또래상담 기본교육을 이수한 중학생 또래상담자를 주요 대상으로 보급한다.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또래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또래상담자에게 본 프로그램을 보수교육으로 제공함으로써

또래상담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교육단계 3회기, 활동단계 1회기 총 4회기로 구성되었다. 교육단계에서는 지식(Knowledge), 인식(Awareness), 기술(Skill)의 세 단계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였고, 활동단계에서는 실천(Practice) 단계로 구분하였다. 각 회기는 50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단계 4회기는 회기 특성상 또래상담 연합회 활동으로 추가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본 프로그램 교육단계 1회기~3회기, 활동단계 4회기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주 1회 또는 2주 1회 한 회기 운영을 권장하며, 지도자 1명이 또래상담자 8명~12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한다.

실시 및 평가단계에서는 예비연구로서 서울 지역 1개 중학교, 부산 지역 2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3학년 또래상담자 64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학교 위(Wee) Class 담당교사에게 프로그램 시범운영 절차와 기간에 대해 안내한 후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생 64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 32명씩 무선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도덕적 이탈, 사이버불링 대처방식, 공감 능력 정도를 측정하였다.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각 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 또래상담자들의 도덕적 이탈 수준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사이버불링 대처방식과 공감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효과성 평가 결과, 참여 만족도 및 회기별 평가 결과, 또래상담 관련 전문가 2인의 감수 의견을 토대로 초안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프로그램 완성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에게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피해를 경험하는 또래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지지자, 문제해결 조력자로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효과성과 타당성을 지속 검증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

I.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2. 연구과제 3

II. 이론적 배경 | 5

- 1. 청소년기 사이버 문화의 특성 5
- 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이해 7
- 3. 또래상담과 청소년 사이버폭력 15

III. 연구방법 | 20

- 1.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과정 20
- 2.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구성 42

IV. 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 | 46

- 1. 예비연구 46
- 2. 참여자 만족도 평가 57
- 3.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감수 및 보완 60

V. 요약 및 논의 | 62

- 1. 연구 요약 62
- 2. 연구의 논의 및 제언 63

참고문헌 | 65

부록 | 72

Abstract | 100

표 목차 |

표 1. 국내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14
표 2. 델파이 조사 대상	23
표 3. 델파이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3
표 4. 델파이 조사 내용 및 응답률	25
표 5. 1차 델파이 조사결과	26
표 6.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관련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28
표 7.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활동관련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32
표 8.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관련 필요정도 결과	34
표 9.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관련 실현가능성 결과	36
표 10.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활동관련 필요정도 결과	39
표 11.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활동관련 실현가능성 결과	41
표 12.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44
표 13. 인구사회학적 특성	46
표 14.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설계	47
표 15. 지도자 특성	48
표 16. 도덕적 이탈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조정평균과 표준오차	50
표 17. 도덕적 이탈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51
표 18. 사이버불링 대처방식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조정평균과 표준오차	53
표 19. 사이버불링 대처방식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54
표 20. 공감 능력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조정평균과 표준오차	55
표 21. 공감 능력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56
표 22. 시범운영 참여자 만족도 평가 결과	57
표 23. 시범운영 참여자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 결과(객관식)	59
표 24. 시범운영 참여자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 결과(주관식)	59
표 25. 수정된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60

그림 목차 |

그림 1.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단계	21
--------------------------------------	----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초고속 인터넷 보급, 첨단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사소한 집안일은 물론 쇼핑, 카드 결제, 은행 업무, 교육 강좌 수강 등 많은 일을 스마트폰으로 처리하는 세상이 되었다. 2017년 한국미디어 패널조사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휴대폰 보유율은 각각 98.7%, 96.5%로 중고등학생의 90% 이상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고, 스마트폰 보유율 또한 92.0%, 93.5%로 나타났다(김윤화, 2018). 또한 인터넷 이용율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증하면서 청소년의 학교생활 패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 확대는 그들의 문화를 빠르고 개성 있게 형성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독 및 그에 따른 부작용, 사생활 침해, 비행, 불법 도박,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역기능이 존재한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을 소외시키고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폭력은 아주 심각한 청소년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언어적·비언어적 폭력행동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생겨난 용어로서(이고은, 2014), 전통적인 학교에서의 따돌림 현상이 전자매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가상준, 김강민, 임재형, 2013).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연도별 학교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17년은 언어폭력(34.1%), 집단따돌림(16.6%), 스토킹(12.3%), 신체폭행(11.7%) 순으로 나타났고, '18년은 언어폭력(34.7%),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 사이버 괴롭힘(10.8%), '19년은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스토킹(8.7%) 순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9). 이와 같이 사이버 괴롭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학생과 성인, 가해 또는 피해 경험을 모두 포함하여 33.5%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 3명 중 1명이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전년(32.8%) 대비 0.7% 증가한 것이다.

사이버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공간으로 학생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와 같은 ‘인스턴트 메시지(가해54.3%, 피해45.6%)’이며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는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

동을 해서(45.0%)’가 가장 많았다. 가해 행동을 한 후 심리상태는 ‘미안하고 후회스러움(51%)’,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됨(49%)’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의 대응방법으로는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ID/이메일을 삭제하거나 변경’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36.6%)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2019). 또한 국내 청소년의 35.7%가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정여주, 김동일, 2012) 이미 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에 매우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비행행동을 일으킬 위험이 높고(Hay, Meldrum, & Mann, 2010) 악성 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한 악성 댓글로 가해하게 된다(Riccardi, 2008; 조아라, 이정윤, 2010).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경험 초등학생들의 경우 공격성이 증가하여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학교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강명주, 신민정, 2013). 이와 같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다시 사이버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폭력과 달리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하루 24시간 내내 괴롭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더욱 더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가해자의 통제로부터 분리되어 SNS 및 블로그에 사진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다는 등 제 3자의 열람으로 인해 사이버폭력은 지속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익명성, 방관성 등 사이버폭력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및 피해 발생시 개입 방법은 많은 한계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정부 및 청소년상담복지 유관기관에서는 스마트기기 오남용으로 인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 등의 부정적인 역기능 발생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다양하고 중장기적인 예방·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를 비롯하여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인터넷 중독, 인터넷 과의존,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에서 발표한 ‘제4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대응방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2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폭력 유형·추세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예방교육 활동을 강화하고자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연간 3차시 이상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전사회적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조성과 학생의 인터넷 윤리 함양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사이버폭력 예방에 관심이 높은 학생을 중심으로 홍보·캠페인, 또래상담

전개 등 참여를 유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 및 교육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일회성에 그치는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과 관련하여, 영국의 자선단체 Beatbullying은 2009년 사이버멘토(Cyber mentors)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가상의 또래지지를 도입하였다(Faccio, Iudici, Costa & Belloni., 2014). 우리나라에도 사이버멘토는 사이버학교에서 실시하는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후 사이버불링에 대한 또래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이창호, 2014). 이는 또래상담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또래상담은 일정한 교육 훈련을 받은 또래상담자가 같은 생활공간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래 친구를 돕는 활동이다. Thompson과 Smith(2011)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불링 이슈(bullying issues)를 해결하고자 할 때 또래 멘토링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제시하였으며, Palladino와 Nocentini, Menesini(2012)는 사이버 괴롭힘 피해 청소년에게 또래상담자가 개입할 때 문제해결력이 증가하여 사이버불링을 감소시키는 매우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또래상담 활동이 학교폭력이나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양미진 외, 2014).

또한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 감소를 위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후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충동성, 공격성 영역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으며(이효정, 2015),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예방차원에서의 개입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정 외, 2015). 사이버폭력은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및 기관에서의 대처 방안 마련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매우 필요로 한다(정여주, 두경희 2014).

하지만 아직까지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 개입 및 교육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방관자, 지원 세력 등 사이버폭력 피해 상황에서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이 가능한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시민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또래 간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자 역량 개발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2. 연구과제

첫째,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래상담자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전문가 및 또래상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요인을 도출한다.

둘째, 도출된 요인들을 토대로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동을 통한 효과성 검증 후,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 사이버 문화의 특성

가. 청소년기 사이버 문화의 특성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기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까지의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략 초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 졸업 전후의 연령이 그 범위가 된다. 물론 청소년기를 단순히 연령만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청소년 내에서도 연령에 따라 사회적·문화적·심리적 문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3~19세의 십대와 20~24세까지의 초기 성인기(early adulthood)를 차별화 하는 경우도 있다(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기의 문화는 역사와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그 모습 또한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2000년대 청소년의 문화를 대표했던 단어로 힙합과 테크노 등을 꼽을 수 있다면 현재 청소년이 추구하는 문화의 주류는 소셜 미디어, SNS, 뉴트로(New+Retro) 등이다. 그러나 이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며 신체적·정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하듯이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온 디지털 네이티브(디지털 원주민), Y세대, Z세대라 일컬어지는 청소년들이 급속한 문화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청소년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2010년 이후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면 ‘가구 인터넷 보급률 및 컴퓨터 보유율’은 가구 내 인터넷 보급률이 84.1%, 컴퓨터 보유율이 72.4%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또한 청소년들의 온라인 주요 접근 수단인 스마트폰 보유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7년 74.2%에서 2018년 81.2%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즉, 온라인 공간으로의 접근이 가정, 학교, PC방 등에 한정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든지 온라인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초기 청소년기에도 온라인에 대한 접근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문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다. 사이버

공간은 지역과 세대를 뛰어 넘어 자신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다양한 가상 공간을 활용해 독립을 간접 경험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아울러 청소년 문화를 가장 빠른 시간에 확산시키고 그들만의 문화 공유와 모방을 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 경험의 의미와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을 ‘자율적인 대안 공간 (autonomous alternative space)’,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overcoming time and space) 소통의 공간’, ‘문화생산자로서의 가능성(possibility of culture producer)에 대한 이해’, ‘정서적 교류 공간(emotional communicative space)’ 총 4가지로 정의하고 있다(김미윤, 2003). 특히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의 온라인 상호작용 도구로 상용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별한 제약 없이 자신의 일상을 타인에게 공유할 수 있고 타인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공감 여부를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이버폭력의 역기능적 현상을 양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화는 청소년들의 문화를 빠르고 개성 있게 형성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익명성과 개방성 등의 오용에 따른 중독, 사생활 침해, 비행, 불법 도박,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역기능 또한 수반한다는 것을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청소년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회피와 불안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문경, 2015),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은 사이버공간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을 경험하거나 자살충동과 같은 극단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욱, 권진, 박수빈, 2019). 또한 디지털 의존도가 높을수록 타자와의 상호작용 능력이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자기애에 침닉하거나 즉각적인 충동과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이 늘어난다고 밝히고 있다(박치완, 2019). 즉, 자기중심적 특성을 가지는 청소년기에 현실세계에서는 적절한 자기조절을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즉각적인 충동 등의 발현으로 인해 부정적 의사소통이나 일탈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비약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문화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한 청소년기의 사이버 문화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순기능이 어울려 청소년 문화의 패러다임을 급속도로 전환시키고 있는 반면, 여러 역기능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익명성, 개방성, 자율성 등에 기반한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은 전통적인 학교폭력에 버금가는 부적효과를 보이며 타겟이 된 청소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24시간 내내 피해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이는 성인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은 현실 공간까

지 넘나드는 폭력 양상과 부작용으로 인해 자정 노력 및 해결책 모색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이해

가. 사이버폭력의 정의 및 특징

사이버폭력은 국외에서는 사이버 공격(cyber aggression), 사이버 괴롭힘(cyber harassment), 사이버 위협(cyber threat), 사이버폭력(cyber violence)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며(정여주, 김동일, 2012),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라는 용어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사이버불링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피해를 가하는 것(Patchin & Hinduja, 2006) 또는 전자매체를 사용하여 쉽게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희생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공격적이고 의도적인 행위(Smith et al., 2008)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이버폭력,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따돌림 등으로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두경희, 김계현, 정여주, 2012). 사이버폭력은 전통적인 학교에서의 따돌림 현상이 전자매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가상준, 김강민, 임재형, 2013).

사회적 요구로 인해 현재 국내외 사이버폭력에 대한 연구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5)는 사이버폭력을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윤경운(2006)은 사이버폭력을 사용수단을 중심으로 한 폭넓은 개념과 행위중심의 개념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터넷상의 게시판, 댓글 등에 비방이나 욕설, 허위사실유포,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유출하여 특정대상자에게 불쾌감과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모든 일련의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박종현(2008)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사이버폭력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익명성이다. 익명성은 자신의 구체적인 실체를 노출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박성호, 2003).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익명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 보장은 비방과 욕설이 난무하며 가해자를 특정하여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이철선, 2003). 둘째, 방관성이다. 사이버 공간은 상호 접근이 용이해 짧은 시간에 많은 사용자들에게 확산되는 빠른 전파력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인격적인 침해, 명예훼손은 더욱 커지게 되어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강창경, 2017). 무엇

보다 무수한 공범자가 존재하여 가해자를 찾기 힘든 특성으로 인해 피해에 대한 신고, 고소나 고발이 매우 어렵다(정완, 2009). 십대의 88%가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사이버폭력 사건을 목격하는데 이러한 방관자의 행동에 따라 사이버폭력 과정을 여러 방식으로 변경시킬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Lenhart et al., 2011). 셋째, 동조성과 집단사고이다. 사이버공동체로서의 동조성은 이슈화된 문제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 강한 결집력을 보이는 현상이고, 집단사고는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조 압력으로 인해 충분한 논의 없이 합의에 이르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 동조현상으로 인해 감정표현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수많은 사람 중 자신 한 사람이 포함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 악성 댓글이 보다 활성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황상민, 2000). 넷째, 확산성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방글 욕설, 영상, 오디오 등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게시 및 전달이 가능하여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무한 복제 및 확산이 될 수 있다(신동준, 이명진, 2006).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괴롭힘에 전제가 되는 힘의 불균형이 전제 되지 않아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힘의 불균형이 전제되지 않아도 핸드폰이나 인터넷 등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이버 상에서 폭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의 불균형 없이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피해자가 사이버 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이수경, 오인수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을 학교 내·외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비방이나 욕설, 협박, 따돌리거나 모욕하는 공격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나.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현황

1) 사이버폭력의 실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체 피해응답률이 전년 대비 0.3% 증가한 1.6%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괴롭힘, 스토킹, 신체폭행 순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9). 신체폭행은 11.7%(2017년)에서 8.6%(2019년), 금품갈취는 6.4%(2017년)에서 6.3%(2019년)로 지속 감소하는 등 물리적 유형의 비중은 낮아졌으나,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의 정서적 폭력 비중은 증가하였다. 또한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4,779명 가운데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률은 26%로 그 중에서 18%가 최근 1년 이내에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2019).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비율과 피해 경험 비율 모두 상대적으로 높고, 초등학생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가해 경험률이 피해 경험률보다 높고, 여학생은 피해 경험률이 가해 경험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공간은 카카오톡, 페이스북과 같은 인스턴트 메시지가 가해 54.3%, 피해 45.5%로 가장 높았다.

또한 사이버폭력 인식 및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는 교사 중 38%가 재직중인 학교의 사이버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부모의 경우 98.7%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책으로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 및 상담은 44.7%, 학생 처벌 규정은 31.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청소년 사이버폭력에서 주요하게 살펴볼 점은 가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후배 등 또래에 의한 가해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해 사실에 대해서도 주변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46.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주변 친구들의 55% 이상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이버폭력 목격 후 대응 방법에 대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가해자에게 그만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43.9% 미만이었다. 이는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 뿐만 아니라 폭력 발생시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이버폭력 가피해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또래상담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사이버폭력의 영향

사이버폭력을 경험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성은 실제 폭력과 다름없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화가 나거나 슬픈 감정을 경험하며, 비참한 느낌을 가지기도 한다(Rigby, 2008). 또한 학교 결석률과 낮은 성적,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학업중단, 결석, 수면장애와 같은 학교생활 적응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Beran & Li, 2007).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는 청소년들은 자살에 대한 사고를 가지기도 하며(Finkelhor, Mitchell, & Wolaket, 2000) 효과적인 대응과 대처가 이루어지

지 않는다면 갈등이나 부적응 증상이 심화되어 자살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양방원, 2016). 이는 정상적인 성인으로 발달해 나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Chapell, Hasselman, Kitchin, Lomon, MacIver, & Sarullo, 2006).

또한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유발되는 분노, 공격성 등의 정서가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유선미, 김정민, 유승희, 2017). 일반긴장이론에 의하면 사이버 폭력의 피해경험은 긴장을 유발시키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에 더욱 쉽게 참여하게 되는 등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만들게 된다(Agnew, 1992).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에서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 라고 응답한 비율이 45%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사이버 폭력의 피해 행동 반응에서 공격적인 대응이 많음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19).

이에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의 가해와 피해가 미치는 심각에 대해 인식하고 사이버폭력 가 피해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또래상담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원인 및 유형

사이버폭력은 청소년의 일상과 학교생활에 침투하여 정신건강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폭력의 피해 목격시 절반 이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창호, 신나민, 하은빈, 2014). 이는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가해자와 주변인 모두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이버폭력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김봉섭, 이원상, 임상수, 2013). 이에 이러한 예측요인을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원인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한다.

1) 사이버폭력의 원인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매우 복잡적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수경과 오인수(2012)는 사이버폭력이 전통적인 폭력을 잘 예측하고 전통적 괴롭힘 또한 사이버폭력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사이버 괴롭힘 가해를 가장 높게 예측하는 변인은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 경험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변인 중에서는 충동성과 공격성이 유의미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인수(2014)는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으로 나타나는

관계에서 전통적인 폭력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공격성이 높은 학생의 경우 전통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폭력의 연장선에서 사이버폭력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정여주와 두경희(2014)는 사이버폭력의 원인을 외부환경요인, 개인내적요인, 개인행태요인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외부환경요인은 사회적 환경과 사이버 환경으로 구분하였는데 사회적 환경은 가정과 학교, 사이버 환경은 익명성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매체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개인내적 요인으로는 낮은 자기통제력, 충동성, 공격성, 스트레스와 긴장 등 주로 정서와 관련된 변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행태요인에서는 비행 친구들이나 비행문화를 접촉하는 것으로 주로 학교 환경에서 일어난 행동들이다. 반지윤과 오인수(2020)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이 완전매개함을 밝혔다.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성격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으나 ADHD 성향이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연결될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있다(Kowalski & Fedina, 2011). 최진오(2013)의 연구에서는 ADHD 성향 아동 60명과 일반아동 1,052명을 비교 조사 하면서 ADHD 성향 아동들이 일반아동에 비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재성과 장정현(2011)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이버폭력을 행하는 친구가 가까이 있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이버폭력의 유형

방송통신위원회(2019)는 사이버폭력을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욕설, 거친 언어, 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의 ‘사이버 언어폭력’,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SNS 등에 올려 아무나(불특정 다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의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인이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이나 문자(쪽지)를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방문하여 댓글 등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의 ‘사이버 스토킹’,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 혹은 성적 비하 발언, 성차별적 욕설 등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게시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인터넷, SNS 등에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신상정보(이름, 거주지, 재학 중인 학교 등)를 유포시키는 행위의 ‘신상 정보 유출’,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시지 등에

서 상대방을 따돌리는 행위의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에서 사이버(게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등을 빼앗는 행위의 ‘사이버 갈취’,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의 ‘사이버 강요’ 등으로 사이버폭력 유형을 분류하였다.

정완(2005)은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이나 욕설 등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메모, 채팅 상에서 행하는 ‘사이버모욕’,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 한다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대화로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 성희롱’, 이메일로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하고 폭력적인 내용의 글이나 영상물을 발송하는 ‘음란스팸메일’, 인터넷이나 PC통신상의 대화방,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반복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인 괴롭힘을 주는 ‘사이버스토킹’, 인터넷이나 PC통신망의 채팅방을 통해 원조교제를 유도하거나 알선하고 중개하여 10대 매매춘과 관련한 ‘사이버성매매’, 연예인의 몰래카메라 등 현실 세계에 서의 내용을 퍼뜨리는 ‘사이버음란물’ 등으로 분류하였다.

정여주와 김동일(2012)은 Willard(2006)의 연구를 토대로 사이버폭력을 폭력 행위 종류에 따라 욕설(flaming), 사이버모욕(harassment), 명예훼손(denigration),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 아이디 도용과 관계된 위장(impersonation), 개인의 정보를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인 폭로(outing),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배제시키는 행위를 나타내는 배제(exclusion)로 나누었으며, 박무원(2011)은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성매매 등 7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사이버폭력의 행위를 분류하는 유형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양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2019)에서 분류한 사이버폭력 유형인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총 8가지 분류 체계를 활용하고자 한다.

라.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국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이버불링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이버불링에 대한 예방과 대처 방안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으로 비디오나 웨비소드(webisode)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Snakenborg, Van Acker, & Gable, 2011). 또한 사

이러한 사이버불링 교육시 학생들에게 단순히 사이버불링만을 교육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미디어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시민의식, 비판적 사고 스킬, 이세이프티(e-safety), 자신의 온라인 위험도 평가, 자신들을 보호할 조치 등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선행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다(Smith, 2012). 특히 교육 교육과정안에 학생들의 공감 능력과 긍정적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하고 있다.

Topcu와 Erdur-Baker(2012)는 공감은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특히 남학생의 경우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최유진, 홍승희, 2012). 사이버불링에서 방관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공감 교육을 통해 방관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하고 긍정적인 방관자 행위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Smith, 2012). 또한 다른 사람에게 사이버불링의 상황을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상황에서 불링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피해학생에게 감정적으로 많은 위로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achackova, Cerna, Sevcikova, Dedkova, & Daneback, 2013).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9)에서 개발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이버 어울림’ 이 있다. 기본(역량) 프로그램과 심층(유형) 프로그램 2가지로 제작되었다. 먼저 기본(역량)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교 대상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와 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는 사이버 공감, 사이버 의사소통, 사이버 자기존중감, 인터넷 윤리의식 및 활용, 사이버 자기조절, 사이버 감정조절, 사이버상의 갈등 관리와 문제해결, 사이버 폭력 인식 및 대처 8개 역량을 도출하여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꾸준히 배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심층(유형) 프로그램은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영상 유포 6개의 사이버폭력 유형을 선별하여 담임·교과시간 또는 창의·체육 시간을 통해 단시간 심층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정은혜(2017)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총 12회기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집단예술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초기에는 라포형성 및 충동성 조절, 중기에는 자기수용 및 공격성 완화, 후기에는 소통능력 향상 및 자기에 성향 조절을 목적으로 미술, 놀이, 연극, 음악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사이버폭력 피해 위험요인 중 특히 자기통제력과 관계성이 높은 공격성, 존중 및 지지감 영역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삭(2016)은 익명성과 빠른 전파력으로 인한 사이버불링의 피해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욕설·폭언에 초점을 두어 도덕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방안을 탐구하였다. 도덕수업을 통한 예방 방안에는 비폭력 대화의 방법과 단계 익히기,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예방 방안에는 선플 달기

운동, 학부모들의 언어사용은 학생들의 언어습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가정에서 학부모, 학생들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을 운영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학교 행사 사진 게시판을 만들어 좋은 댓글 달기, 학생들의 사이버불링 관련 상태에 대하여 학부모와 교사 간 정보 공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은정(2015)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총 14회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대처방법을 익히기 위해 비폭력 대화 연습 및 영화를 활용하고, 충동·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호흡법, 근육이완훈련, 의사결정 단계 연습 및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화목한 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점 찾기, 존중지지감 증진을 위한 자신의 강점 찾기 등 각 하위 영역별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효정(2015)은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 감소를 위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총 12회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스트레스 대처 훈련, 자기교시 훈련, 타인존중, 분노그래프 작성 등의 분노조절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충동성, 공격성 영역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국내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연구자(년도)	대상	회기	목적 및 내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	초·중등	단회기 모듈식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폭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방에 필요한 기본 역량 배양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초·중등	단회기 모듈식	초·중등 학생들이 관여되기 쉬운 사이버폭력, 또래간의 빈번히 발생하는 사이버폭력 유형 등 문제 영역별 학급 대상 집중 개입 프로그램
정은혜(2017)	초등	12회기	미술, 놀이 연극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 집단 예술치료 프로그램
이삭(2016)	초등	-	사이버 욕설 및 폭언에 초점을 둔 도덕수업을 통한 사이버불링 예방 방안
김은정(2015)	초등	14회기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대처방법 습득을 목적으로 호흡법, 근육이완훈련, 강점 찾기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구성
이효정(2015)	중등	12회기	스트레스 대처 훈련, 분노조절 활동 등을 통한 가해 행동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3. 또래상담과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 또래상담의 정의

또래상담(peer counseling)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9년 Vriend가 낮은 학업 성취 수준의 학생들과 또래들과의 상담결과를 발표하면서 부터이다(Varenhorst, 1984). 이후 또래상담(peer counseling), 또래조력자(peer helper), 또래촉진자(peer facilitator) 등 30여 가지의 관련 용어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Carr, 1993).

또래상담은 충고보다 공감과 존중감을 가지고 또래들의 말에 경청하는 역할을 매우 중요시한다. 또한 또래상담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 상황과 자신에 대한 각성을 촉진시켜 자기 자신이 해결책을 찾도록 인도하는 것이다(구본용, 구혜영, 이명우, 1994).

청소년이 다른 또래를 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요구는 청소년의 상담수요가 증대하는 데 비해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인하였다(Gray & Tindall, 1978). Hamburg와 Varenhorst(1972)는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의 역할 축소 및 학생 지도에 대한 학교의 역할기대가 높아진 반면, 교사와 상담자만으로는 당장 위기에 봉착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에 급급하여 준(準)위기 집단 대응 및 예방적 대처에 한계가 따른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학교 청소년들이 교사, 상담자의 한계점을 충분히 메워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한 학생과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도울 훌륭한 전략적 자원이 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이 대인관계 문제 해결, 사회적 기술 습득, 진로 정보 제공, 모델링 제공 등의 또래상담(peer counseling)을 통해 타인에게 냉담하고 무관심한 학급 분위기를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학교장면에서의 또래상담에 대한 정의를 Lucian(1977)은 특별히 훈련받은 또래 학생이 다른 또래 학생의 학업, 인성, 행동 등 관련된 문제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Chickering(1987)은 자신의 생활경험에 기반 하여 비슷한 상황을 겪는 또래에게 지지적인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손광민, 남상인, 김계현, 2017). Deutsch와 Swartz(2003)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일련의 훈련된 방법으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고,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기술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형득과 김정희(1983)는 특별히 훈련받은 재학생이 지도자가 되어 몇몇 정상적인 동료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성장과 발달 및 인간관계 발달의 능력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구본용, 김용태, 이재규, 박한샘, 공윤정

(1995)은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생활경험 및 가치관 등을 지닌 청소년들 중에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다른 또래들이 발달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에 조력하고, 이들이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생활의 제반영역에서 지지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양미진, 서미, 주지선, 전환희, 성벼리, 김혜영(2013)은 또래상담자의 활동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 또래상담자의 역할이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첫째, 또래상담자로서의 정체성 확립, 둘째, 피해학생에 대한 정서적 지지자, 셋째, 조력자, 넷째, 문제 해결자, 마지막으로 학교 공감배려문화 촉진자이다. 구본용, 이숙영, 송수민, 이상희(1998)는 또래상담자들이 고립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또래청소년들의 학습기술을 지도하거나 친구들의 고민이나 고충을 들어주는 등 또래간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점이 어려움에 처한 또래 청소년들을 심리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또래상담이란 ‘일정한 훈련을 받은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 현장을 공유하는 어려움을 겪는 또래에게 지지적인 관계를 맺고 문제해결, 학교 적응, 성장 및 발달 등의 도움을 주는 활동’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 또래상담 프로그램

1) 국외 프로그램

또래상담자가 또래친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력하기 위해서는 또래상담자에게 상담 역량을 배양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국외 또래상담 프로그램에서는 멘토링, 경청, 갈등 해결, 친구 되어주기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또래상담자들이 상담활동에 필요한 상담기술을 함양시킬 뿐만 아니라 보조 리더, 학습보조자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또래상담의 초창기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Hamburg와 Varenhorst(1972)의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또래상담의 역할, 상담전략 및 상담실습, 청소년 문제 이해(대인관계, 가족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주요하게 가족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혼 가정에서 이혼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가족 규칙과 문화, 형제간 경쟁, 가족으로부터의 압력과 가족 내 고립, 가족 안에서 중요한 적응문제, 정서 변화와 성장 및 발달단계, 가정 내 경험되는 자기정체성, 안정감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주제들은 프로그램 개발 당시 미국 청소년들의 주요 고민으로서 또래상담자에서 교육된 것으로 보인다(서미 외, 2014).

1980년대 이후 청소년문제가 다양해지면서 또래상담이 개입하는 영역은 약물남용, 문제

행동, 갈등해결, 폭력, 성문제, 대인관계 등으로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었다(노성덕, 2006; Carr, 1993). 이에 따라 또래상담자들의 역할도 확대되었다. 힐학교(The High School)의 또래 학습 지원(또래 튜터링), 어빙턴 고등학교(Irvington High School)의 금연 교육 및 캠페인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 국내 프로그램

또래상담은 또래 지지를 증진시키고 친사회적 활동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국내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이다. 이는 1994년에 개발된 청소년 대상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해외 또래상담 프로그램과는 달리 국책연구과제로 개발되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로 보급되고 있다.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1차 상담서비스를 강조한 준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2002년까지 또래상담의 기본 역할 규정, 또래상담자의 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기 및 청소년기의 발달단계별 또래상담 방안 탐색기를 거쳐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프로그램으로 확립되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또래상담자 정신 확립 및 연합활동 강조기로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에 세분화되고 현자의 소리에 부응하여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이 과정에서 초기에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외에 초등학생용 또래상담 프로그램(2001), 또래상담자 심화훈련 프로그램(2003)이 개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에는 기존에 학교에서 진행되던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후기청소년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군장병 대상 군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2009)이 개발되었다.

2012년에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부처연계 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4년까지 3년간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로 확대·보급 되었다. 그 결과 2012년에 4,638개교에서 운영되던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2014년 6,396개교, 2016년 7,713개교, 2019년에는 9,012개교에서 운영되었으며, 전국 또래상담자 역시 2012년 60,681명에서 2014년 104,650명, 2016년 171,950명, 2019년에는 482,933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9).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이러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전국적인 확대와 더불어 더욱 다양해지는 청소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

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2013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솔리언 또래상담 기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또래상담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역할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법을 제시하였다(양미진 외, 2013). 또한 2014년에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해외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서미, 천희선, 이해민, 윤민지, 김승윤, 안지영, 2014)’이 개발되었으며, 2015년에는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김미정 외, 2015)’을 개발하였다. 2016년에는 학교 내 탈북청소년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다문화 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서미 외, 2016)’, 2018년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후기 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양미진, 이정희, 김범구, 박선영, 김혜영, 전예나, 2018)’을 개발하였다.

다. 또래상담자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또래상담은 친구를 돕고 함께 성장하는 노력을 하게 함으로써 ‘나-중심(me-ism)의 개인적 문화’에서 ‘우리중심(we-ism)의 공동체 문화’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며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양미진 외, 2018). Privette와 Delawder(1982)는 또래상담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상담에 비해 지출 비용이 저렴하고, 라포형성 및 수평적 관계형성이 가능하다는 관계적 이점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점에 힘입어 실제로 성인, 대학생, 청소년 및 아동 등 다양한 연령 집단 내에서 알콜, 약물, 성 등 다양한 범주를 아우르는 문제영역에 대해 또래상담이 이뤄진다고 밝혔다(양미진 외, 2018). Thompson과 Smith(2011)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불링 이슈(bullying issues)를 해결하고자 할 때 또래 멘토링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제시하였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면 그 첫 번째 선택은 부모나 선생님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였다(강창경, 2017; Slonje & Smith., 2008).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고민이 있을 때 남자 청소년은 49.0%, 여자 청소년은 49.2%가 부모나 스승보다는 친구동료들에게 고민 상담을 한다고 조사되었다(통계청, 2019).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이버 괴롭힘 피해 청소년들 또한 부모나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문제 해결과 관련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박경민, 오인수, 2018; Aricak et al., 2008). 또한 최근 메타분석에 의하면 사이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경험에 관하여 어른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을 주저하지만(강창경, 2017; Machackova et al., 2013) 비밀을 털어놓아야 한다면 또래에게 이야기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강창경, 2017; Slonje & Smith, 2008).

Palladino 등(2012)은 사이버 괴롭힘 피해 청소년에게 또래상담자 개입 시 문제해결력의 증가로 사이버불링을 감소시키는 매우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또래상담자가 그들이 주도권을 증진하고 다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을 지원 받아야지만 학급 전체에 변화의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사이버폭력 영역에서도 또래상담자가 개입하는 것이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사이버 관련 청소년 문제 개입에 대한 또래상담자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될 것이다. 특히 사이버폭력의 경우 청소년기의 가피해 경험이 대학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Watts, Wagner, Velasquez, & Behrens, 2017)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고착화·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강창경, 2017)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III. 연구 방법

1.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과정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통해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실태와 유형,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내외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이버폭력에 노출되었을 때의 심리적 어려움과 적절한 지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학계전문가,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도교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래상담 전문가, 청소년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단계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김창대 등(2011)이 제안한 프로그램 개발 3단계(프로그램 기획단계 → 프로그램 구성단계 →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단계)를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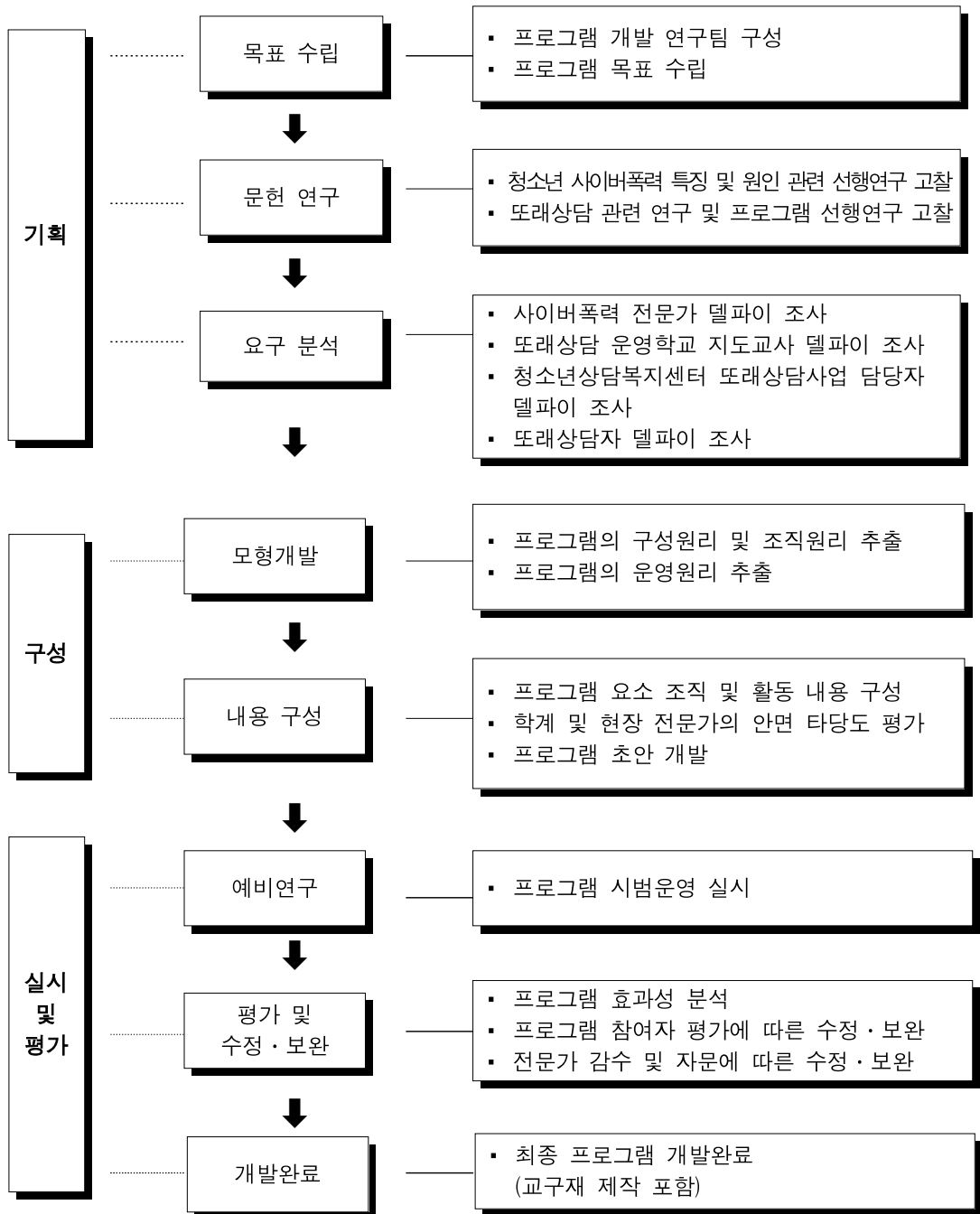


그림 1.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단계

나. 델파이 조사

1) 델파이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델파이 조사방법은 추정하려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 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 라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이종성, 2011). 델파이 연구방법은 면대면 토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횡포, 권위 있는 어느 한 인물의 발언 영향, 한번 취한 입장의 고수 등 심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패널식 조사연구이다(노성덕, 2006).

본 연구에서는 또래상담 전문가들이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또래상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정리하여 델파이 연구에 참여한 다른 전문가들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환류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특징이 있다(양미진 외,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델파이 조사 대상

또래상담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이후 실시되고 있는 보수교육은 또래상담 지도교사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보수교육 및 활동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상담 전문가들이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구성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도교사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래상담 전문지도자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 사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또래상담 전문가뿐만 아니라 중학생 또래상담자를 델파이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삼각측정을 하였다.

본 연구의 1차 델파이 조사를 위해 선정된 또래상담자 및 또래상담 전문가들은 총 51명이다. 학계전문가 2명,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도교사 14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래상담 전문지도자 17명, 솔리언 또래상담 기본교육을 이수한 중학생 또래상담자 18명으로 선정하였다. 1차, 2차,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51명 전원이 모두 설문에 참여하였다.

델파이 조사 대상 및 일반적 특성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2. 델파이 조사 대상

구분		차수별 응답인원(명)		
		1차	2차	3차
전문가 및 지도자	학계 전문가	2	2	2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도교사	14	14	1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래상담 전문지도자	17	17	17
청소년	중학생 또래상담자	18	18	18
계		51	51	51

표 3. 델파이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집단구분	요인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7	21.2	
	여	26	78.8	
연령	30세 이상-40세 미만	11	33.3	
	40세 이상-50세 미만	17	51.5	
	50세 이상-60세 미만	5	15.2	
전문가 및 지도자	또래상담사업 운영경력	1년 미만	3	9.1
		1년 이상-2년 미만	2	6.1
		2년 이상-3년 미만	2	6.1
		3년 이상-4년 미만	8	24.2
		4년 이상-5년 미만	10	30.3
		5년 이상-7년 미만	7	21.2
		7년 이상	1	3.0
최종학력	대졸	2	6.1	
	석사 수료	2	6.1	
	석사	20	60.6	

집단구분	요인		빈도(명)	백분율(%)
		박사 수료	3	9.1
		박사	6	18.2
	최종전공	사회복지학	1	3.0
		심리학	9	27.3
		교육학	14	42.4
		가족학	1	3.0
		청소년학	1	3.0
		기타	7	21.2
청소년	성별	남	6	33.3
		여	12	66.7
	학년	2학년	9	50.0
		3학년	9	50.0
	또래상담 활동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12	66.7
		2년 이상-3년 미만	5	27.8
		3년 이상	1	5.5

3) 조사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델파이 조사 및 분석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델파이 조사를 위해 3개 조사도구를 제작하였다.

첫 번째 조사도구는 델파이 1차 설문지로서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향(또래상담 프로그램 구성 및 사업운영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자유기술 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델파이 2차 설문지는 1차 델파이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의견들을 종합하여 제작하였다. 2차 설문지는 유사한 문항끼리 영역을 나누어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 활동을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또래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필요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불필요, 7점: 매우 필요)로, 실현가능성을 4점 리커트 척도(1점: 불가능, 4점: 가능)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우선순위는 각 영역마다 1~10위까지 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델파이 3차 설문지는 2차 결과에서 나타난 의견들을 종합하여 각 문항별로 평균, 최빈치, 본인의 응답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분포를 고려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3차 델파이 설문지는 조사 대상자에게 e-mail로 보내졌으며, 다시 e-mail을 통해 응답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구체적인 조사절차 및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델파이 조사 내용 및 응답률

구분	조사기간	내용	배포형태	표집인원	응답인원	응답률
1차 델파이 조사	2020.5.11. ~6.1.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방형 질문	e-mail	51명	51명	100%
2차 델파이 조사	2020.6.17. ~6.24.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교육, 활동에 대한 필요정도, 실현가능성 및 우선 순위	e-mail	51명	51명	100%
3차 델파이 조사	2020.7.15. ~7.24.	2차 설문 결과로 나온 사이버 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교육, 활동에 대한 필요정도, 실현가능성	e-mail	51명	51명	100%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1-3차 델파이 조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되었다.

첫째, 전문가 및 또래상담자에게 델파이 1차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의견을 종합한 결과 총 279개의 의견이 나왔으며, 비슷한 의견들은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총 54개의 의견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차 설문에서는 54개의 의견과 연구진의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사이버 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 43문항, 활동 11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둘째, 2차 설문은 1차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각 문항에 대해 필요정도, 실현가능성, 우선 순위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과 활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문항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셋째, 3차 설문은 2차 설문지의 내용을 분석 한 후 2차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각 문항에 따라 평균, 최빈치, 본인의 응답을 제시하여 각 문항에 대해 다시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활동의 각 영역에 따라 필요정도, 실현가능성이 높은 순위대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 활동의 구성요소에 포함될 부분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다. 델파이 조사 결과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 및 또래상담자에게 델파이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종합한 결과 총 279개의 의견이 수집되었다. 또래상담 전문가의 설문 조사 결과와 또래상담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중학생 또래상담자의 설문 조사 결과가 유사하게 도출되어 전문가와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비슷한 의견들은 통합하여 총 54개의 의견이 추출되었다. 이 의견들은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교육과 활동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육은 지식, 인식, 기술 3가지 세부 영역으로 활동은 제작, 소통, 조사, 캠페인 4가지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세부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1차 델파이 조사결과

영역	내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의(개념, 특징) 교육이 필요하다. ●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실태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실제 사례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유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다중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률 교육이 필요하다. ●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또래친구들에게 접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상황에 대한 사전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 사후개입에 대한 내용 교육이 필요하다. ● 사이버폭력을 방관(묵인)하거나 동조(가담)하지 않고 방어(조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것(지식과 정보, 연계 기관 및 인적 지지 체계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N번방 사건 등을 제시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사이버 활용을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 사이버폭력의 사후적 조치보다 사전적 예방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이 필요하다. ● 가상공간에서의 행위도 반드시 책임과 처벌이 뒤따른다는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 온라인 시민의식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공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또래상담자로서의 자기이해(성격, 기질, 타인과의 관계패턴 등) 교육이 필요하다. ● 사이버폭력에 대한 감수성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 ● 또래상담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과 도움을 청해야하는 상황(또래상담자의 역할 한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사이버 관련 스토킹, 성폭력, 명예훼손 등의 문제).

영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청소년을 발견하는 시각(신호나 사인 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또래친구가 사이버폭력을 겪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학교폭력 주변인(방관자, 동조자, 방어자)의 행동 또는 태도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 온라인상에서의 언어적 폭력(저격글, 단독지옥, 게시형 폭력 등)에서 오프라인 만남을 통한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일상 속에 암묵적으로 자리 잡은 비속어 사용에 대해 생각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 나의 사이버공간 활용을 점검해보는 교육이 필요하다(예. 사이버 예절 등). ●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이버폭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교육이 필요하다. ● 나는 어떤 유형인지(방관자, 동조자, 방어자, 가해자, 피해자 등) 자가테스트를 해보는 내용이 필요하다.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사례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실제 사례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사이버 공간에 대한 올바른 활용 방법 교육이 필요하다. ● 또래상담자가 피해자 개입 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 또래상담자가 피해 청소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존감 향상 기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또래상담자가 피해 청소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기주장능력 향상 기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또래상담자의 소진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 또래상담자의 자기표현 및 주장 등의 의사소통과 공격 및 충동, 분노 등의 정서 조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또래상담자로서 스스로를 안전한 영역에 두면서 할 수 있는 조력행동에 대한 토의(행동리스트 도출)가 필요하다. ● 사이버폭력 피해청소년에 대한 또래상담자의 조력활동 등 개입방안 교육이 필요하다(예. 감정다루기, 안부문자하기 등) ● 공감반응하기, 대화를 통한 불안감 해소하기 등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 주변의 지지, 회피행동, 인지적 사고의 전환 등 사이버폭력의 극복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명상, 놀이, 음악, 미술 등 콘텐츠를 활용한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하다. ● 경청, 공감보다 더 심화된 상담 기법이나 전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대인관계 향상(친구 배려하기)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 피해자 간접 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교육이 필요하다. ● 메신저, SNS 등 온라인상에서의 상담, 교사 및 부모와의 면대면 상담 등 수퍼비전 교육이 필요하다. ● 실제 사례를 역할극으로 해봄으로써 피해자의 혼란스러움 불안 등의 감정을 직접 경험해보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교육이 필요하다. ● 강의식 설명보다 토론, 활동(퀴즈, 동영상 만들기, 보드게임, O.X퀴즈 등)으로 교육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역		내용
활동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 폭력예방 활동(15초 광고·카툰 이모티콘 제작 및 5행시 짓기 등)을 직접 제작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학교 내에서 청소년 시선에 맞는 사이버 폭력 예방법 숙지를 위해 또래상담자 동아리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가이드라인 포스터를 만드는 활동이 필요하다. PC, 휴대폰 사용이 높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앱을 만들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선생님, 부모님! 사이버폭력을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학교나 가정에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도움 받고 싶은 내용을 뽑아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사와 부모에게 제공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래상담자 오픈채팅방을 통해 언제든지 피해 청소년들이 마음 편하게 도움을 요청(익명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 또래상담자의 날’을 지정하여 카톡방에서의 칭찬 릴레이를 하거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이버폭력 예방 카드를 만들어 올리고 친구들을 태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학급신문을 만들어서 소감 선물을 달고, 선물을 단 친구를 칭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내에서 언어폭력 실태조사 등의 또래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지역사회 연계 기관 대상 온라인 순회 및 열람 활동이 필요하다.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이 필요하다(법안 만들기 등). 학교 내에서 직접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캠페인, 사이버폭력 예방의 날, 미디어 인권챌린지 등)이 필요하다.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가) 교육 프로그램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교육에 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교육 내용들의 필요정도와 실현가능성은 전반적으로 의견 일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관련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영역	내용	필요정도		실현가능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식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의(개념, 특징) 교육이 필요하다.	5.96	1.26	3.71	0.50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실태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31	0.98	3.73	0.45

영역	내용	필요정도		실현가능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제 사례를 활용한 사이버 폭력 유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27	0.88	3.65	0.48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다중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57	1.06	3.25	0.70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률 교육이 필요하다.	5.78	1.01	3.33	0.69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또래친구들에게 접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상황에 대한 사전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6.06	0.94	3.40	0.68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 사후개입에 대한 내용 교육이 필요하다.	5.65	1.15	3.21	0.82
	사이버폭력을 방관(묵인)하거나 동조(가담)하지 않고 방어(조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것(지식과 정보, 연계 기관 및 인적 지지 체계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45	0.65	3.60	0.49
	N번방 사건 등을 제시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29	0.71	3.69	0.47
	사이버 활용을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5.63	1.22	3.51	0.58
	사이버폭력의 사후적 조치보다 사전적 예방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이 필요하다.	5.96	1.00	3.59	0.50
	가상공간에서의 행위도 반드시 책임과 처벌이 뒤따른다는 인식교육이 필요하다.	5.35	1.39	3.27	0.73
	온라인 시민의식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	6.47	0.79	3.65	0.56
인식	사이버 공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5.76	1.18	3.52	0.58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또래상담자로서의 자기이해(성격, 기질, 타인과의 관계패턴 등) 교육이 필요하다.	5.45	1.37	3.45	0.68
	사이버폭력에 대한 감수성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	5.76	1.16	3.35	0.66
	또래상담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과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또래상담자의 역할 한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사이버관련 스토킹, 성폭력, 명예훼손 등의 문제).	6.33	0.92	3.55	0.50
	피해 청소년을 발견하는 시각(신호나 사인 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20	0.91	3.27	0.76
	또래친구가 사이버폭력을 겪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학교폭력 주변인(방관자, 동조자, 방어자)의 행동 또는 태도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6.31	0.92	3.49	0.62

영역	내용	필요정도		실현가능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온라인상에서의 언어적 폭력(저격글, 단독지옥, 게시형 폭력 등)에서오프라인 만남을 통한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교육이 필요하다.	6.10	1.01	3.39	0.73
	일상 속에 암묵적으로 자리 잡은 비속어 사용에 대해 생각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5.63	1.24	3.33	0.75
	나의 사이버공간 활용을 점검해보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 사이버예절 등).	5.51	1.17	3.41	0.67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이버폭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교육이 필요하다.	5.78	1.09	3.16	0.80
	나는 어떤 유형인지(방관자, 동조자, 방어자, 가해자, 피해자 등) 자가테스트를 해보는 내용이 필요하다.	5.86	1.21	3.41	0.70
기술	실제 사례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45	0.79	3.67	0.47
	실제 사례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45	0.87	3.69	0.47
	사이버 공간에 대한 올바른 활용 방법 교육이 필요하다.	5.67	1.09	3.45	0.74
	또래상담자가 피해자 개입 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6.10	1.01	3.39	0.64
	또래상담자가 피해 청소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존감 향상기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37	1.11	2.82	0.88
	또래상담자가 피해 청소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기 주장능력향상 기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47	1.19	2.86	0.89
	또래상담자의 소진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5.20	1.27	2.92	0.79
	또래상담자의 자기표현 및 주장 등의 의사소통과 공격 및 충동, 분노 등의 정서 조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90	1.01	3.31	0.62
	또래상담자로서 스스로를 안전한 영역에 두면서 할 수 있는 조력행동에 대한 토의(행동리스트 도출)가 필요하다.	5.98	1.03	3.29	0.61
	사이버폭력 피해청소년에 대한 또래상담자의 조력활동 등 개입방안 교육이 필요하다(예. 감정다루기, 안부문자하기 등)	6.29	0.87	3.57	0.65
	공감반응하기, 대화를 통한 불안감 해소하기 등 사이버 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6.12	0.90	3.55	0.54
	주변의 지지, 회피행동, 인지적 사고의 전환 등 사이버 폭력의 극복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82	1.01	3.20	0.82

영역	내용	필요정도		실행가능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명상, 놀이, 음악, 미술 등 콘텐츠를 활용한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하다.	5.02	1.46	2.90	0.94
	경청, 공감보다 더 심화된 상담 기법이나 전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29	1.31	3.02	0.78
	대인관계 향상(친구 배려하기)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5.33	1.53	3.39	0.73
	피해자 간접 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교육이 필요하다.	5.76	1.11	3.16	0.72
	메신저, SNS 등 온라인상에서의 상담, 교사 및 부모와의 면대면 상담 등 수퍼비전 교육이 필요하다.	5.39	1.24	2.86	0.98
	실제 사례를 역할극으로 해봄으로써 피해자의 혼란스러움 불안 등의 감정을 직접 경험해보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교육이 필요하다.	5.51	1.24	2.90	0.74
	강의식 설명보다 토론, 활동(퀴즈, 동영상 만들기, 보드 게임, O.X퀴즈 등)으로 교육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5.98	1.18	3.37	0.76

이와 같이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 관련 세부영역 지식에서는 온라인 시민함양 교육(6.47), 사이버폭력을 방어(조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것에 대한 교육(6.45),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6.31), 디지털 성범죄 교육(6.29), 실제 사례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유형 교육(6.27)이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인식에서는 또래상담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과 청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교육(6.33), 주변인에 대한 행동 및 태도의 중요성 교육(6.31)이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기술에서는 실제사례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 방법 교육(6.45), 실제사례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대처방법 교육(6.45), 피해청소년 개입방안 교육(6.29)이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세 가지 세부영역 모두 의견일치를 또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지식에서는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6.31), 사전적 예방 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5.96), 2차 피해상황에 대한 사전 교육(6.06)이, 인식에서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폭력상황에 대한 교육(6.10), 직·간접적 경험 공유(5.78), 주변인 자가테스트(5.86)가, 기술에서는 활동식 교육(5.98), 안전한 영역에서의 조력활동 교육(5.98), 사이버폭력의 극복 방법 교육(5.82)이 필요성 정도는 비교적 높게 나왔으나 의견일치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에서는 가상공간에서의 책임과 처벌에 대한 교육(5.35), 인식에서는 자기이해 교육(5.45), 기술에서는 명상, 놀이, 음악, 미술 등 콘텐츠를 활용한 상담역량강화 교육(5.02)의 경

우 필요정도와 의견일치율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각 영역별 의견들의 실현가능성은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기술 영역에서 피해 청소년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존감 향상 교육(2.82), 온라인상에서의 상담, 교사 및 부모와의 면대면 상담 등 수퍼비전 교육(2.86)의 실현가능성은 다른 의견들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나) 활동 프로그램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활동에 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교육에 비해 활동문항들의 표준편차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조사자들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활동관련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영역	내용	필요정도		실현가능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제작	사이버 폭력예방 활동(15초 광고·카톡 이모티콘 제작 및 5행시 짓기 등)을 직접 제작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5.47	1.49	3.33	0.83
	학교 내에서 청소년 시선에 맞는 사이버 폭력 예방법 숙지를 위해 또래상담자 동아리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가이드라인 포스터를 만드는 활동이 필요하다.	5.61	1.44	3.45	0.65
	PC, 휴대폰 사용이 높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앱을 만들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4.80	1.46	2.16	0.87
	‘선생님, 부모님! 사이버폭력을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학교나 가정에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도움 받고 싶은 내용을 뽑아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사와 부모에게 제공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5.78	1.25	3.18	0.70
소통	또래상담자 오픈채팅방을 통해 언제든지 피해 청소년들이 마음 편하게 도움을 요청(익명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65	1.32	3.06	0.88
	‘사이버 또래상담자의 날’을 지정하여 카톡방에서의 칭찬 릴레이를 하거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이버폭력 예방 카드를 만들어 올리고 친구들을 태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5.41	1.48	3.27	0.86
	학급신문을 만들어서 소감 선물을 달고, 선물을 단 친구를 칭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5.12	1.44	3.20	0.74
조사	학교 내에서 언어폭력 실태조사 등의 또래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5.82	1.35	3.39	0.73

영역	내용	필요정도		실현가능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교, 지역사회 연계 기관 대상 온라인 순회 및 열람 활동이 필요하다.	5.02	1.27	2.65	0.86
캠페인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이 필요하다(법안 만들기 등).	5.88	1.13	2.92	0.93
	학교 내에서 직접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캠페인, 사이버폭력 예방의 날, 미디어 인권챌린지 등)이 필요하다.	6.10	1.29	3.65	0.63

이와 같이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활동 관련 세부영역 제작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부모, 교사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내용 가이드라인 제작(5.78)이, 소통에서는 오픈채팅방 활용(5.65), 조사에서는 실태조사 활동(5.82)이, 캠페인에서는 교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캠페인, 사이버폭력 예방의 날, 미디어 인권챌린지 등)(6.10)이 필요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의견 일치율 에서는 다소 의견차이가 있었다.

반면, 각 의견들의 실현가능성은 제작에서 건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앱 제작(4.80), 조사에서는 연계기관 대상 온라인 순회 및 열람 활동(5.02)이 다른 의견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3)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가) 교육 프로그램

3차 설문은 2차 설문결과의 각 항목에 대한 평균, 최빈치, 자신의 응답값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교육 및 활동의 각 항목에 대한 필요정도와 실현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항목은 첫째, CVR값이 높을수록, 둘째, 평균값이 높을수록, 셋째, 표준편차가 작은 순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중 중요한 구성 항목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표 8>, <표 9>와 같다.

표 8.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관련 필요정도 결과

영역	내용	필요정도		
		M	SD	CVR
지식	가상공간에서의 행위도 반드시 책임과 처벌이 뒤따른다는 교육이 필요하다.	5.80	1.02	0.88
	사이버폭력을 방관(묵인)하거나 동조(가담)하지 않고 방어(조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것(지식과 정보, 연계 기관 및 인적 지지 체계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45	0.86	0.84
	N번방 사건 등을 제시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06	1.03	0.84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또래친구들에게 접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상황에 대한 사전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5.98	0.88	0.84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실태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18	1.14	0.76
	온라인 시민의식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	5.76	1.01	0.76
	실제 사례를 활용한 사이버 폭력 유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08	1.04	0.73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의(개념, 특징) 교육이 필요하다.	5.75	1.29	0.69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률 교육이 필요하다.	5.73	1.06	0.69
	사이버폭력의 사후적 조치보다 사전적 예방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이 필요하다.	5.80	1.25	0.65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 사후개입에 대한 내용 교육이 필요하다.	5.31	1.03	0.65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다중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33	1.16	0.61
	사이버 활용을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5.22	1.24	0.57
인식	또래상담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과 도움을 청해야하는 상황(또래상담자의 역할 한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사이버 관련 스토킹, 성폭력, 명예훼손 등의 문제).	6.39	0.75	1.00
	또래친구가 사이버폭력을 겪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학교 폭력 주변인(방관자, 동조자, 방어자)의 행동 또는 태도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6.24	0.81	0.92
	피해 청소년을 발견하는 시각(신호나 사인 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22	0.86	0.88
	사이버 공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5.67	0.93	0.88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이버폭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교육이 필요하다.	5.49	0.97	0.80
	온라인상에서의 언어적 폭력(저격글, 단독지옥, 게시형 폭력 등)에서 오프라인 만남을 통한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04	1.11	0.76

영역	내용	필요정도		
		M	SD	CVR
	일상 속에 암묵적으로 자리 잡은 비속어 사용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5.55	1.06	0.76
	나의 사이버공간 활용을 점검해보는 교육이 필요하다(예. 사이버 예절 등).	5.49	0.9	0.76
	나는 어떤 유형인지(방관자, 동조자, 방어자, 가해자, 피해자 등) 자가테스트를 해보는 내용이 필요하다.	5.71	1.06	0.73
	사이버폭력에 대한 감수성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	5.55	0.92	0.69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또래상담자로서의 자기이해(성격, 기질, 타인과의 관계패턴 등) 교육이 필요하다.	5.41	1.04	0.53
기술	실제 사례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41	0.85	0.92
	실제 사례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35	0.93	0.92
	공감반응하기, 대화를 통한 불안감 해소하기 등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6.12	0.93	0.88
	사이버폭력 피해청소년에 대한 또래상담자의 조력활동 등 개입방안 교육이 필요하다(예. 감정다루기, 안부문자하기 등)	6.12	0.99	0.88
	또래상담자가 피해자 개입 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5.98	0.84	0.88
	또래상담자로서 스스로를 안전한 영역에 두면서 할 수 있는 조력행동에 대한 토의(행동리스트 도출)가 필요하다.	5.96	0.94	0.88
	피해자 간접 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교육이 필요하다.	5.76	0.91	0.84
	강의식 설명보다 토론, 활동(퀴즈, 동영상 만들기, 보드게임, O.X퀴즈 등)으로 교육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6.00	1.02	0.80
	사이버 공간에 대한 올바른 활용 방법 교육이 필요하다.	5.63	0.89	0.80
	또래상담자의 자기표현 및 주장 등의 의사소통과 공격 및 충돌, 분노 등의 정서 조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67	0.91	0.76
	주변의 지지, 회피행동, 인지적 사고의 전환 등 사이버폭력의 극복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61	1.04	0.73
	대인관계 향상(친구 배려하기)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5.69	1.32	0.61
	메신저, SNS 등 온라인상에서의 상담, 교사 및 부모와의 면대면 상담 등 수퍼비전 교육이 필요하다.	5.12	1.13	0.61

영역	내용	필요정도		
		M	SD	CVR
	실제 사례를 역할극으로 해봄으로써 피해자의 혼란스러움 불안 등의 감정을 직접 경험해보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교육이 필요하다.	5.31	1.21	0.53
	또래상담자가 피해 청소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기주장 능력 향상 기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06	1.10	0.49
	또래상담자의 소진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5.16	1.03	0.45
	또래상담자가 피해 청소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존감 향상 기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12	1.14	0.45
	경청, 공감보다 더 심화된 상담 기법이나 전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4.98	1.44	0.29
	명상, 놀이, 음악, 미술 등 콘텐츠를 활용한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하다.	4.75	1.38	0.25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 부분의 필요정도를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지식에서는 가상공간에서의 행위도 책임과 처벌이 따른다는 교육(5.80), 사이버폭력을 방어(조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6.45), 디지털 성범죄 교육(6.06), 2차 피해상황에 대한 사전 교육(5.98)의 필요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식에서는 또래상담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과 청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교육(6.39), 주변인에 대한 행동 및 태도의 중요성 교육(6.24)의 필요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에서는 실제 사례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대처방법 교육(6.41), 실제사례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방법 교육(6.35)의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9.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관련 실현가능성 결과

영역	내용	실현가능정도		
		M	SD	CVR
지식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의(개념, 특징) 교육이 필요하다.	3.86	0.35	1.00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실태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86	0.35	1.00
	사이버폭력을 방관(목인)하거나 동조(가담)하지 않고 방어(조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것(지식과 정보, 연계 기관 및 인적 지지 체계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71	0.46	1.00
	사이버폭력의 사후적 조치보다 사전적 예방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이 필요하다.	3.67	0.52	0.96

영역	내용	실행가능정도		
		M	SD	CVR
	가상공간에서의 행위도 반드시 책임과 처벌이 뒤따른다는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3.65	0.52	0.96
	실제 사례를 활용한 사이버 폭력 유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73	0.53	0.92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또래친구들에게 접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상황에 대한 사전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3.61	0.57	0.92
	사이버 활용을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3.49	0.58	0.92
	N번방 사건 등을 제시하여 사이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67	0.59	0.88
	온라인 시민의식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	3.49	0.67	0.80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률 교육이 필요하다.	3.37	0.72	0.80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다중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33	0.74	0.76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 사후개입에 대한 내용 교육이 필요하다.	3.20	0.78	0.65
인식	또래상담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과 도움을 청해야하는 상황(또래상담자의 역할 한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사이버 관련 스토킹, 성폭력, 명예훼손 등의 문제).	3.69	0.51	0.96
	사이버 공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3.49	0.58	0.92
	또래친구가 사이버폭력을 겪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학교 폭력 주변인(방관자, 동조자, 방어자)의 행동 또는 태도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3.61	0.63	0.84
	피해 청소년을 발견하는 시각(신호나 사인 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47	0.64	0.84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또래상담자로서의 자기이해(성격, 기질, 타인과의 관계패턴 등) 교육이 필요하다.	3.45	0.70	0.84
	사이버폭력에 대한 감수성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	3.31	0.68	0.76
	일상 속에 암묵적으로 자리 잡은 비속어 사용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3.47	0.70	0.76
	나의 사이버공간 활용을 점검해보는 교육이 필요하다(예, 사이버 예절 등).	3.43	0.70	0.76
	나는 어떤 유형인지(방관자, 동조자, 방어자, 가해자, 피해자 등) 자가테스트를 해보는 내용이 필요하다.	3.41	0.70	0.76
	온라인상에서의 언어적 폭력(저격글, 단톡지옥, 게시형 폭력 등)에서 오프라인 만남을 통한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43	0.76	0.69

영역	내용	실행가능정도		
		M	SD	CVR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이버폭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교육이 필요하다.	3.25	0.74	0.65
기술	실제 사례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73	0.49	0.96
	실제 사례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71	0.58	0.96
	사이버폭력 피해청소년에 대한 또래상담자의 조력활동 등 개입방안 교육이 필요하다(예. 감정다루기, 안부문자하기 등)	3.59	0.57	0.92
	강의식 설명보다 토론, 활동(퀴즈, 동영상 만들기, 보드게임, O.X퀴즈 등)으로 교육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57	0.61	0.88
	사이버 공간에 대한 올바른 활용 방법 교육이 필요하다.	3.41	0.67	0.80
	공감반응하기, 대화를 통한 불안감 해소하기 등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3.39	0.67	0.80
	대인관계 향상(친구 배려하기)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3.35	0.69	0.76
	또래상담자의 자기표현 및 주장 등의 의사소통과 공격 및 충동, 분노 등의 정서 조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18	0.62	0.76
	또래상담자가 피해자 개입 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3.22	0.76	0.69
	또래상담자로서 스스로를 안전한 영역에 두면서 할 수 있는 조력행동에 대한 토의(행동리스트 도출)가 필요하다.	3.18	0.68	0.69
	피해자 간접 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교육이 필요하다.	3.06	0.73	0.61
	주변의 지지, 회피행동, 인지적 사고의 전환 등 사이버폭력의 극복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00	0.72	0.57
	또래상담자의 소진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2.96	0.85	0.49
	또래상담자가 피해 청소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기주장 능력 향상 기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2.84	0.78	0.45
	명상, 놀이, 음악, 미술 등 콘텐츠를 활용한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하다.	2.94	0.88	0.41
	경청, 공감보다 더 심화된 상담 기법이나 전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2.86	0.78	0.41
	실제 사례를 역할극으로 해봄으로써 피해자의 혼란스러움 불안 등의 감정을 직접 경험해보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교육이 필요하다.	2.76	0.76	0.37

영역	내용	실행가능성		
		M	SD	CVR
	또래상담자가 피해 청소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존감 향상 기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2.75	0.84	0.29
	메신저, SNS 등 온라인상에서의 상담, 교사 및 부모와의 면대면 상담 등 수퍼비전 교육이 필요하다.	2.78	0.83	0.22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부분의 실행가능성의 결과는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 부분의 필요도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각 세부영역별로 일부 차이가 있었으나,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지식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의(개념, 특징) 교육(3.86),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교육(3.86), 사이버폭력을 방어(조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것에 대한 교육(3.71)이 실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식에서는 또래상담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과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교육(3.69), 사이버공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3.49)이 실행가능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에서는 실제사례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대처방법 교육(3.73), 실제사례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방법 교육(3.71), 피해청소년 개입방안 교육(3.59)이 실행가능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활동 프로그램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활동부분은 앞서 살펴본 교육부분과 같이 필요도와 실행가능성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세부내용은 <표 10>, <표 11>과 같다.

표 10.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활동관련 필요정도 결과

영역	내용	필요정도		
		M	SD	CVR
제작	‘선생님, 부모님! 사이버폭력을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나 가정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 내용을 뽑아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사와 부모에게 제공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5.76	1.16	0.80
	학교 내에서 청소년 시선에 맞는 사이버 폭력 예방법 숙지를 위해 또래상담자 동아리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가이드라인포스터를 만드는 활동이 필요하다.	5.69	1.05	0.69
	사이버 폭력예방 활동(15초 광고·카툰 이모티콘 제작 및 5행시 짓기 등)을 직접 제작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5.47	1.21	0.57

영역	내용	필요정도		
		M	SD	CVR
	PC, 휴대폰 사용이 높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앱을 만들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4.55	1.14	0.02
소통	또래상담자 오픈채팅방을 통해 언제든지 피해 청소년들이 마음 편하게 도움을 요청(익명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88	1.01	0.76
	‘사이버 또래상담자의 날’을 지정하여 카톡방에서의 칭찬 릴레이를 하거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이버폭력 예방 카드를 만들어 올리고 친구들을 태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5.69	1.05	0.76
	학급신문을 만들어서 소감 선물을 달고, 선물을 단 친구를 칭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5.37	0.98	0.65
조사	학교 내에서 언어폭력 실태조사 등의 또래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5.78	1.03	0.76
	학교, 지역사회 연계 기관 대상 온라인 순회 및 열람 활동이 필요하다.	4.75	1.07	0.22
캠페인	학교 내에서 직접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캠페인, 사이버폭력 예방의 날, 미디어 인권챌린지 등)이 필요하다.	6.14	1.08	0.84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이 필요하다(법안 만들기 등).	5.63	1.08	0.76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활동 부분의 필요정도를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제작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도움 받고 싶은 내용에 대한 부모, 교사용 가이드라인 제작(5.76), 포스터 제작(5.69),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5.47), 앱 제작(4.55) 순으로 필요정도가 나타났다. 둘째, 소통에서는 오픈채팅방 활용(5.88), 사이버 또래상담자의 날 지정(5.69), 학급신문 제작(5.37) 순으로 필요정도가 나타났다. 셋째, 조사에서는 실태조사 활동(5.78), 연계기관 대상 온라인 순회 및 열람 활동(4.75) 순으로 넷째, 캠페인에서는 교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캠페인, 사이버폭력 예방의 날, 미디어 인권챌린지 등)(6.14), 정책제안활동(5.63) 순으로 필요정도가 나타났다.

표 11.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활동관련 실현가능성 결과

영역	내용	실현가능정도		
		M	SD	CVR
제작	학교 내에서 청소년 시선에 맞는 사이버 폭력 예방법 숙지를 위해 또래상담자 동아리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가이드라인 포스터를 만드는 활동이 필요하다.	3.55	0.61	0.92
	사이버 폭력예방 활동(15초 광고·카툰 이모티콘 제작 및 5행 시 짓기 등)을 직접 제작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3.33	0.74	0.76
	‘선생님, 부모님! 사이버폭력을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학교나 가정에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도움 받고 싶은 내용을 뽑아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사와 부모에게 제공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3.14	0.6	0.76
	PC, 휴대폰 사용이 높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앱을 만들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2.04	0.89	-0.57
소통	학급신문을 만들어서 소감 선물을 달고, 선물을 단 친구를 칭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3.24	0.59	0.84
	‘사이버 또래상담자의 날’을 지정하여 카톡방에서의 칭찬 릴레이를 하거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이버폭력 예방 카드를 만들어 올리고 친구들을 태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3.35	0.69	0.76
	또래상담자 오픈채팅방을 통해 언제든지 피해 청소년들이 마음 편하게 도움을 요청(익명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94	0.88	0.41
조사	학교 내에서 언어폭력 실태조사 등의 또래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3.43	0.73	0.80
	학교, 지역사회 연계 기관 대상 온라인 순회 및 열람 활동이 필요하다.	2.53	0.70	-0.10
캠페인	학교 내에서 직접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캠페인, 사이버폭력 예방의 날, 미디어 인권챌린지 등)이 필요하다.	3.65	0.56	0.92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이 필요하다(법안 만들기 등).	2.78	0.81	0.33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활동 부분의 실현가능정도를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제작에서는 포스터 제작(3.55),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3.33), 부모, 교사에게 제공하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도움 받고 싶은 내용 가이드라인 제작(3.14), 앱 제작(2.04) 순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았고 둘째, 소통에서는 학급신문 제작(3.24), 사이버 또래상담자의 날 지정(3.35), 오픈채팅방 활용(2.94) 순으로 실현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조사에서는 실태조

사 활동(5.78), 연계기관 대상 온라인 순회 및 열람 활동(4.75) 순으로 넷째, 캠페인에서는 교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캠페인, 사이버폭력 예방의 날, 미디어 인권챌린지 등)(6.14), 정책제안활동(5.63) 순으로 실현가능성의 정도가 나타났다.

2.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구성

가. 프로그램 구성원리

기존의 문헌연구와 또래상담 지도교사 및 전문지도자,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구성원리를 도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 예방에 있어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한계를 명료화하고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한 사이버폭력의 이해, 또래상담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최근 청소년폭력이 신체폭력보다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 등 정서폭력의 형태가 증가하면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자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또래상담은 청소년 문제 해결 및 청소년 문화 성장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이버폭력 가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또는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방어자, 동조자 등 관여 행동 유형에 따른 또래상담 개입방법 프로그램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크게 교육과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교육 단계에서는 지식(Knowledge), 인식(Awareness), 기술(Skill)의 세 단계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였고, 활동 단계에서는 실천(Practice) 단계로 구성하였다. 먼저 지식(Knowledge) 단계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유형을 알아보고 사이버폭력이 자기 자신과 또래, 학교,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또래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높여줄 수 있는 내용이 강조된다. 둘째, 인식(Awareness) 단계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탐색해보고 또래상담자로서 올바른 역할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가점검 체크리스트와 구체적인 사례 적용 실습을 통해 유형별 개입방안에 대해 배우는 훈련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기술(Skill) 단계에서는 사이버폭력이 범죄이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례를 통해 사이버폭력 피해 친구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정서적, 행동적 대화기법을 익힌다. 넷째, 실천(Practice) 단계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기본예절을 익히고 사이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폭력 방어자로서의 또래상담 실천을 다짐하고 실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주도할 수 있다.

나. 프로그램 운영원리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운영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솔리언 또래상담 기본교육을 이수한 중학생 또래상담자를 주요 대상으로 보급한다.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또래상담 활동을 하는 또래상담자에게 본 프로그램을 보수교육으로 제공함으로써 또래상담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단계 3회기, 활동단계 1회기 총 4회기 단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4회기의 경우 대상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활용도를 확대하였다. 교육단계에서는 지식(Knowledge), 인식(Awareness), 기술(Skill)의 세 단계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였고, 활동단계에서는 실천(Practice) 단계로 구분하였다. 각 회기는 50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단계 4회기는 회기 특성상 또래상담 연합회 활동으로 추가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본 프로그램 교육단계 1회기~3회기, 활동단계 4회기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주 1회 또는 2주 1회 한 회기 운영을 권장하며, 지도자 1명이 또래상담자 8명~12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한다.

다. 프로그램 구성 초안

기존의 문헌연구와 또래상담 지도교사 및 전문지도자,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프로그램의 목표, 구성원리 및 운영원리에 따라 지도자용 지침서, 워크시트, 웹 교재 총 3개의 교구재를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4회기 프로그램으로 교육단계 1회기~3회기, 활동단계 4회기로 구분된다. 1회기 인스톨(Install)에서는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사이버상에서의 활동을 점검해보고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유형, 사이버폭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한다. 2회기 시프트(Shift)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역할 유형을 탐색해보고 올바른 역할에 대해 인식한다. 또한 사이버폭력 상황 발생 시 주변인 역할에 대한 시각을 인식함으로써 또래상담자가 주변인들에게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3회기 엔터(Enter)에서는 사이버폭력 또한 범죄임을 이해하고 사이버폭력 피해 친구들을 돕기 위한 정서적, 행동적 대처방법을 익힌다. 4회기 업그레이드(Upgrade)에서는 사이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사이버폭력 방어자로서 또래상담을 활용한 다양한 실천을 다짐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법을 익힌다. 이를 통해 또래상담자는 교실, 학교,

지역사회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주도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 초안 세부내용은 <표 12>와 같다.

표 12.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단계	회기/주제	목표	내용구성
기 초 단 기	지식 (Knowledge)	1회기 인스톨 (Inst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소개 및 함께 지킬 약속정하기 -자기소개하기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 세상 이해하기 -아낌없이 주는 “chat” -사이버폭력의 정의 및 유형 이해하기 [마무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폭력이 미치는 영향 생각해보기 -소감 나누기
	인식 (Awareness)	2회기 시프트 (Shi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위 돌아보기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공간에서의 나는? -친구 유형 탐색하기 -유형별 개입방안 탐색하기 [마무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문장으로 말해요
	기술 (Skills)	3회기 엔터 (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성게임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팬숙이의 고민 -어마무시한 사이버폭력 예방법 [마무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적 도덕 행위자

	단계	회기/주제	목표	내용구성
활동	실천 (Practice)	4회기 업그레이드 (Upgra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 예절을 익히고 직접 만드는 활동 등을 통해 사이버 시민의식을 함양한다. ● 사이버폭력 방어자로서 또래상담을 활용한 다양한 실천을 다짐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다. ● 교실·학교·지역사회에서 또래상담자로서 사이버폭력 예방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주도할 수 있다. 	<p>[도입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전과정 돌아보기 (선택) -솔리를 지켜라! <p>[주요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티켓 N계명 만들기 -사이버폭력 방어자로서의 또래상담 실천 다짐하기 -사이버폭력 예방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기획하기(선택) <p>[마무리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삼이의 일기’ 영상 시청 -프로그램 평가 및 소감나누기

IV. 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

1. 예비연구

가.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희망한 서울 지역 1개 중학교, 부산 지역 2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3학년 또래상담자 6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학교 위(Wee) Class 담당 교사에게 프로그램 시범운영 절차와 기간에 대해 안내한 후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생 64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 32명씩 무선으로 배치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연구대상자 64명 모두 효과 검증을 위한 사전, 사후검사에 성실히 응답하여 중도 탈락자는 없었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3>과 같다.

표 13. 인구사회학적 특성

집단구분	요인		빈도(명)	백분율(%)
실험집단 (n=32)	성별	남	5	15.6
		여	27	84.4
	학년	1학년	11	34.4
		2학년	10	31.2
		3학년	11	34.4
	또래상담 활동경력	1년 미만	11	34.4
		1년 이상-2년 미만	12	37.5
2년 이상-3년 미만		6	18.7	
3년 이상		3	9.4	
통제집단 (n=32)	성별	남	13	40.6
		여	19	59.4
	학년	1학년	10	31.2
		2학년	10	31.2

집단구분	요인	빈도(명)	백분율(%)
	3학년	12	37.6
	1년 미만	22	68.8
	1년 이상-2년 미만	6	18.8
	2년 이상-3년 미만	3	9.3
	3년 이상	1	3.1

나.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 사후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 비교를 위해 도덕적 이탈, 사이버불링 대처방식, 공감 능력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사전검사는 프로그램 1회기 시작 전, 사후검사는 프로그램 4회기를 마친 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설계는 <표 14>와 같다.

표 14.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설계

연구대상 구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 ₁	X ₁	O ₂
통제집단	O ₃		O ₄

O₁, O₃ : 사전검사 / 도덕적 이탈 척도, 사이버불링 대처방식 척도, 공감 능력 척도
 O₂, O₄ : 사후검사 / 도덕적 이탈 척도, 사이버불링 대처방식 척도, 공감 능력 척도
 X₁ : 실험처치 /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4회기)

시범운영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면과 비대면 형식을 혼합하여 운영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 위(Wee) Class 및 실시간 비대면 ZOOM 화상 강의를 통해 2020년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시범운영은 프로그램 개발자 4인이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자 4인은 박사 1명, 석사 3명의 또래상담 전문지도자로서 다수의 청소년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 집단 운영 경력이 있다.

지도자 특성은 <표 15>와 같다.

표 15. 지도자 특성

번호	성별	나이	학력	상담경력	상담관련 자격증
1	여	37세	박사	13년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
2	남	41세	석사	11년	중등정교사, 사회복지사
3	남	32세	석사	6년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4	여	31세	박사과정	5년	청소년상담사

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참여가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또래상담자의 역량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사후검사 도구는 사이버 공간에서 탈억제 현상으로 인해 이탈의 측면에서 폭력 행동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측정하는 도덕적 이탈 척도, 사이버불링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측정하는 사이버불링 대처방식 척도, 또래상담자의 자질인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공감 능력 척도를 선정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도덕적 이탈 척도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이탈을 측정하기 위하여 Bandura와 동료들(1996)이 개발한 도덕적 이탈척도(Mechanism of Moral Disengagement Scale; MMDS)를 토대로 서미정과 김경연(2006)이 우리나라 실정과 문화에 맞게 번안하고 김영은(2019)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도덕적 정당화, 완곡한 언어, 상대적 비교, 결과의 무시 혹은 왜곡, 책임전가, 책임분산, 피해자의 비인간화, 비난의 귀인 여덟 개 하위요인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도덕적 이탈을 질문하는 것으로 ‘또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대개 그럴만한 행동을 한다’,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괜찮다’, ‘다른 아이를 때리는 것에 비하면 깔보며 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범위는 Likert형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산 총점이 높을수록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영은(2019)의 연구에서 내적신뢰도 Chronbach's α 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의 Ch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2) 사이버불링 대처방식 척도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오인수와 김서정(2016)이 개발한 사이버불링 대처방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술적 방어, 직접적 공격, 간접적 공격, 도움추구, 무시, 회피, 수동적 대응, 적극적 대응의 여덟 개 하위요인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사이버불링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괴롭힘 기록을 캡처하거나 녹음하여 증거로 남긴다’, ‘사이버상에서 가해자에게 직접 욕을 하며 화를 낸다’, ‘사이버상에서 괴롭힘 행동을 비꼴다’,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사이버상에서 괴롭힘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 사이버상에서 핑계를 대며 괴롭힘 상황을 피한다, ‘사이버상에서 가해자의 괴롭힘에 순응한다’, ‘사이버상에서 괴롭힘 행위를 잘못되었다고 명확하게 알려준다’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오인수와 김서정(2016)의 연구에서 기술방어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86, 직접공격에 대한 Chronbach's α 값은 .94, 간접공격에 대한 Chronbach's α 값은 .93, 도움추구에 대한 Chronbach's α 값은 .89, 무시에 대한 Chronbach's α 값은 .83, 회피에 대한 Chronbach's α 값은 .89, 수동적 대응에 대한 Chronbach's α 값은 .87, 적극적 대응에 대한 Chronbach's α 값은 .90이었으며, 본 연구의 기술방어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86, 직접공격에 대한 Chronbach's α 값은 .84, 간접공격에 대한 Chronbach's α 값은 .85, 도움추구에 대한 Chronbach's α 값은 .84, 무시에 대한 Chronbach's α 값은 .84, 회피에 대한 Chronbach's α 값은 .85, 수동적 대응에 대한 Chronbach's α 값은 .86, 적극적 대응에 대한 Chronbach's α 값은 .86으로 나타났다.

3) 공감 능력 척도

본 연구에서는 공감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Davis(1980)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척도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 IRI)와 Bryant(1982)의 공감 능력 척도를 박성희(1997)가 번안하고 재구성한 척도를 참고하여 송지연(2016)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공감, 정의적 공감 두 개 하위요인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잠시나마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면 그에 대해 정말로 염려가 되는 때가 자주 있다’ 등의 질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범위는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산 총점이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송지연(2016)의 연구에서 내적신뢰도 Chronbach's α 는 .71이었으며, 본 연구의 Ch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라.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도덕적 이탈, 사이버불링 대처방식, 공감 능력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각 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공변량분석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다른 특성들을 통제하여 프로그램만의 영향력을 끌어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 적합한 통계방법으로 판단하였다(이윤로, 유시순, 2011).

마. 연구결과

1) 도덕적 이탈 변화 검증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하위요인별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표준오차를 산출하였다.

산출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도덕적 이탈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조정평균과 표준오차

하위요인	집단	<i>n</i>	사전검사		사후검사		조정된 사후검사	
			<i>M</i>	<i>SD</i>	<i>M</i>	<i>SD</i>	<i>M</i>	<i>SE</i>
도덕적 정당화	실험	32	8.125	1.791	8.062	1.605	8.062	1.605
	통제	32	7.781	2.574	8.281	2.246	8.281	2.246
완곡한 언어	실험	32	3.125	1.211	3.656	1.095	3.062	.981
	통제	32	2.843	1.110	3.062	.981	3.656	1.095

하위요인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조정된 사후검사	
			M	SD	M	SD	M	SE
상대적 비교	실험	32	5.468	1.795	4.031	1.447	4.656	.827
	통제	32	4.562	.913	4.656	.827	4.031	1.447
책임 전가	실험	32	8.375	2.338	6.656	2.164	6.656	2.164
	통제	32	8.000	2.663	7.562	2.539	7.562	2.539
책임 분산	실험	32	14.093	1.855	16.406	3.757	16.406	3.757
	통제	32	14.562	1.625	14.562	2.242	14.562	2.242
결과의 무시 혹은 왜곡	실험	32	7.250	1.796	5.875	1.475	5.875	1.475
	통제	32	6.531	1.777	4.593	1.757	4.593	1.757
피해자의 비인간화	실험	32	8.062	2.651	8.468	4.087	8.468	4.087
	통제	32	8.031	3.136	6.687	2.361	6.687	2.361
비난의 귀인	실험	32	5.218	1.211	4.156	1.139	4.156	1.139
	통제	32	5.250	1.741	4.906	1.729	4.906	1.729
전체	실험	32	59.437	7.396	51.218	7.665	51.218	7.665
	통제	32	57.843	8.401	54.000	8.639	54.000	8.639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도덕적 이탈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도덕적 이탈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하위요인	변량원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	p
도덕적 정당화	사전검사	185.298	1	185.298	221.434	.000
	집단	3.767	1	3.767	4.501***	.000
	오차	51.045	61	.837		
	합계	237.109	63			
완곡한 언어	사전검사	43.992	1	43.992	116.162	.000
	집단	2.396	1	2.396	6.326***	.000
	오차	23.102	61	.379		
	합계	72.734	63			

하위요인	변량원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	p
상대적 비교	사전검사	6.105	1	6.105	4.651	.000
	집단	9.851	1	9.851	7.504***	.000
	오차	80.082	61	1.313		
	합계	92.438	63			
책임 전가	사전검사	127.817	1	127.817	35.884	.000
	집단	19.993	1	19.993	5.613***	.000
	오차	217.277	61	3.562		
	합계	358.234	63			
책임 분산	사전검사	77.192	1	77.192	9.118	.000
	집단	72.178	1	72.178	8.526**	.004
	오차	516.402	61	8.466		
	합계	647.984	63			
결과의 무시 혹은 왜곡	사전검사	47.436	1	47.436	24.992	.000
	집단	13.267	1	13.267	6.990**	.001
	오차	115.783	61	1.898		
	합계	189.484	63			
피해자의 비인간화	사전검사	282.578	1	282.578	42.221	.000
	집단	49.463	1	49.463	7.390**	.001
	오차	408.266	61	6.693		
	합계	741.609	63			
비난의 귀인	사전검사	81.563	1	81.563	96.846	.000
	집단	8.436	1	8.436	10.015**	.002
	오차	51.374	61	.842		
	합계	141.938	63			
전체	사전검사	2099.944	1	2099.944	62.930	.000
	집단	247.445	1	247.445	7.415**	.001
	오차	2035.525	61	33.369		
	합계	4259.234	63			

* $p < .05$, ** $p < .01$, *** $p < .001$

집단 간의 주 효과는 $F=7.415(p < .01)$ 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도덕적 이탈 수준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2) 사이버불링 대처방식 변화 검증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하위요인별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표준오차를 산출하였다.

산출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사이버불링 대처방식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조정평균과 표준오차

하위요인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조정된 사후검사	
			M	SD	M	SD	M	SE
기술방어	실험	32	13.937	3.444	15.625	3.652	15.625	3.652
	통제	32	13.750	3.152	13.656	3.525	13.656	3.525
직접공격	실험	32	17.718	2.399	17.718	2.399	17.718	2.399
	통제	32	18.062	1.776	16.718	2.555	16.718	2.555
간접공격	실험	32	17.562	2.723	9.562	5.552	9.562	5.552
	통제	32	17.968	2.494	13.718	3.549	13.718	3.549
도움추구	실험	32	17.500	2.214	20.875	2.825	20.875	2.825
	통제	32	16.812	3.430	18.125	3.669	18.125	3.669
무시	실험	32	14.812	3.855	14.781	3.713	14.781	3.713
	통제	32	15.406	3.171	13.500	3.252	13.500	3.252
회피	실험	32	15.531	3.058	14.562	3.407	14.562	3.407
	통제	32	14.875	3.319	16.125	4.598	16.125	4.598
수동적 대응	실험	32	18.000	2.047	17.875	2.196	17.875	2.196
	통제	32	17.500	2.794	14.375	5.203	14.375	5.203
적극적 대응	실험	32	16.187	2.632	17.375	2.791	17.375	2.791
	통제	32	16.781	3.535	15.375	3.773	15.375	3.773
전체	실험	32	131.250	12.061	133.093	13.931	133.093	13.931
	통제	32	129.875	14.013	127.687	14.717	127.687	14.717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이버불링 대처방식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사이버불링 대처방식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하위요인	변량원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	p
기술방어	사전검사	417.965	1	417.965	66.962	.000
	집단	53.030	1	53.030	8.496**	.001
	오차	380.754	61	6.242		
	합계	860.734	63			
직접공격	사전검사	248.460	1	248.460	114.405	.000
	집단	27.939	1	27.939	12.865**	.001
	오차	132.477	61	2.172		
	합계	396.937	63			
간접공격	사전검사	69.634	1	69.634	3.327	.000
	집단	253.317	1	253.317	12.103**	.001
	오차	1276.709	61	20.930		
	합계	1622.734	63			
도움추구	사전검사	188.030	1	188.030	24.047	.000
	집단	86.003	1	86.003	10.999**	.002
	오차	476.970	61	7.819		
	합계	786.000	63			
무시	사전검사	543.814	1	543.814	156.730	.000
	집단	50.293	1	50.293	14.495***	.000
	오차	211.655	61	3.470		
	합계	781.734	63			
회피	사전검사	416.655	1	416.655	42.451	.000
	집단	69.504	1	69.504	7.081*	.010
	오차	598.720	61	9.815		
	합계	1054.438	63			
수동적 대응	사전검사	149.750	1	149.750	10.882	.002

하위요인	변량원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	p
	집단	160.359	1	160.359	11.655**	.001
	오차	839.280	61	13.759		
	합계	1185.000	63			
적극적 대응	사전검사	202.647	1	202.647	25.734	.000
	집단	87.123	1	87.123	11.064**	.001
	오차	480.353	61	7.875		
	합계	747.000	63			
전체	사전검사	9854.018	1	9854.018	208.889	.000
	집단	265.631	1	265.631	5.631**	.001
	오차	2877.575	61	47.173		
	합계	13199.234	63			

* $p < .05$, ** $p < .01$, *** $p < .001$

집단 간의 주 효과는 $F=5.631(p < .01)$ 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대처방식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3) 공감 능력 변화 검증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공감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하위요인별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표준오차를 산출하였다.

산출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 공감 능력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조정평균과 표준오차

하위요인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조정된 사후검사	
			M	SD	M	SD	M	SE
인지적 공감	실험	32	15.218	1.736	16.875	1.453	16.875	1.453
	통제	32	16.031	1.534	15.531	2.422	15.531	2.422
정의적 공감	실험	32	12.875	1.641	12.968	1.768	12.968	1.768
	통제	32	13.031	1.713	12.187	1.554	12.187	1.554

하위요인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조정된 사후검사	
			M	SD	M	SD	M	SE
전체	실험	32	28.093	2.668	29.843	2.437	29.843	2.437
	통제	32	29.062	2.256	27.718	2.819	27.718	2.819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감 능력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공감 능력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하위요인	변량원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	p
인지적 공감	사전검사	95.908	1	95.908	5.119	.000
	집단	57.829	1	57.829	23.275***	.000
	오차	151.560	61	2.485		
	합계	276.359	63			
정의적 공감	사전검사	65.239	1	65.239	37.331	.000
	집단	12.273	1	12.273	7.023**	.001
	오차	106.604	61	1.748		
	합계	181.609	63			
전체	사전검사	99.442	1	99.442	18.313	.000
	집단	105.761	1	105.761	19.476***	.000
	오차	331.245	61	5.430		
	합계	502.938	63			

* $p < .05$, ** $p < .01$, *** $p < .001$

집단 간의 주 효과는 $F=19.476(p < .01)$ 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2. 참여자 만족도 평가

가. 시범운영 참여자 만족도 평가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참여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32명의 중학생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지를 배포하고 문항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만족도 평가 결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68.7%(22명)가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하였으며, 31.3%(10명)가 ‘그렇다’ 고 응답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중학생 또래상담자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서 78.1%(25명)가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하였으며 21.9%(7명)가 ‘그렇다’ 고 응답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만족도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프로그램이 다른 또래상담자들에게 활용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90.6%(29명)가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하였으며 9.4%(3명)가 ‘그렇다’ 로 응답해 프로그램의 활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프로그램 이해도, 목적 부합성, 유의성, 추천 의향의 정도에 관한 질문에서도 전체 32명의 중학생 또래상담자 중 25명 이상이 ‘매우 그렇다’ 로 응답하여 목적 부합성, 유의성, 추천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 참여자 만족도 평가 세부내용은 <표 22>와 같다.

표 22. 시범운영 참여자 만족도 평가 결과

(단위 : 명)

질문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응답수
1.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나요?	0 (0.0%)	0 (0.0%)	0 (0.0%)	10 (31.3%)	22 (68.7%)	4.69	32
2. 프로그램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나요?	0 (0.0%)	0 (0.0%)	0 (0.0%)	7 (21.9%)	25 (78.1%)	4.78	32
3.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만족스러웠나요?	0 (0.0%)	0 (0.0%)	0 (0.0%)	7 (21.9%)	25 (78.1%)	4.78	32
4.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졌나요?	0 (0.0%)	0 (0.0%)	0 (0.0%)	6 (18.7%)	26 (81.3%)	4.81	32
5. 프로그램이 유의하다고 생각하나요?	0 (0.0%)	0 (0.0%)	0 (0.0%)	7 (21.9%)	25 (78.1%)	4.78	32
6. 프로그램이 다른 또래상담자들에게	0	0	0	3	29	4.91	32

질문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응답수
활용되기를 원하나요?	(0.0%)	(0.0%)	(0.0%)	(9.4%)	(90.6%)		
7. 프로그램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나요?	0 (0.0%)	0 (0.0%)	0 (0.0%)	5 (15.6%)	27 (84.4%)	4.84	32

나. 시범운영 참여자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한 32명의 중학생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지를 배포하고 문항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회기별 평가 결과 1회기에 대해서는 59.4%(19명)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고 응답하였으며 40.6%(13명)가 ‘도움이 되었다’ 고 응답하여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주관식 문항에서도 ‘활동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보다 와 닿았다’ 고 응답하여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단계에 적절하게 부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회기에 대해서는 75.0%(24명)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고 응답하였으며 25.0%(8명)가 ‘도움이 되었다’ 고 응답하여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주관식 문항에서 ‘상황(사례)를 통해 방어자, 방관자, 동조자 개념을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방관자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3회기에 대해서는 81.3%(26명)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고 응답하였으며 18.7%(6명)가 ‘도움이 되었다’ 고 응답하여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주관식 문항에서 ‘직접 실습을 해보며 상담기법을 익힐 수 있어 좋았다’ 고 기술하여 기술을 전달하는 교육단계에 매우 적절하게 부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4회기에 대해서도 81.3%(26명)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고 응답하였으며 18.7%(6명)가 ‘도움이 되었다’ 고 응답하였다. 주관식 문항에서는 ‘또래상담자로서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어 좋았다’ 고 기술하여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시범운영 참여자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의 세부내용은 <표 23>, <표 24>와 같다.

표 23. 시범운영 참여자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 결과(객관식)

(단위 : 명)

회기별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평균	응답수
교육	1회기: 인스톨(Install)	0 (0.0%)	0 (0.0%)	0 (0.0%)	13 (40.6%)	19 (59.4%)	4.59	32
	2회기: 시프트(Shift)	0 (0.0%)	0 (0.0%)	0 (0.0%)	8 (25.0%)	24 (75.0%)	4.75	32
	3회기: 엔터(Enter)	0 (0.0%)	0 (0.0%)	0 (0.0%)	6 (18.7%)	26 (81.3%)	4.81	32
활동	4회기: 업그레이드(Upgrade)	0 (0.0%)	0 (0.0%)	0 (0.0%)	6 (18.7%)	26 (81.3%)	4.81	32

표 24. 시범운영 참여자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 결과(주관식)

회기별 구분		응답 내용
교육	1회기: 인스톨(Inst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다. •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 보다 와 닿았다.
	2회기: 시프트(Shi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사례)를 통해 방어자, 방관자, 동조자 개념을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사이버폭력이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주변에 장난으로 가려져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내가 방관자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회기: 엔터(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사례)를 통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또래 간 사이버 폭력 문제를 잘 알게 되었다. • 직접 실습을 해보며 상담기법을 익힐 수 있어 좋았다.
활동	4회기: 업그레이드(Upgra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상담자로서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어 좋았다.

3.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감수 및 보완

가. 시범운영 참여자 만족도 평가

개발된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하여 효과성 평가, 회기 및 종합평가, 또래상담 관련 전문가 2인의 감수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성 및 참여자 관점의 회기별 평가를 통하여 시범운영에 사용한 프로그램 내용이 연구 목표와 부합하며, 참여한 중학생 또래상담자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해 상당 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진은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구성요소를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초안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또래상담 지도자들이 또래상담자 대상 교육을 진행할 때 지도자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고 최대한 교육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도자 지침서에 지도자 멘트를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Tip 란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 노하우를 기재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 시 사례를 적용할 때 이해도가 높고 공감에 더욱 잘 되었다는 참여자의 평가가 많았다. 이에 2회기 시프트(Shift) 부분에서 방관자, 방어자, 동조자의 유형별 개입방안에 관한 설명과 함께 실제 대화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어체로 예시를 추가하였다. 또한 3회기 엔터(Enter) 부분에서는 교육 훈련 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폭력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추가 제시하였다.

셋째, 또래상담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담의 내용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위기상담의 경우 위험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또래상담자의 활동범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초안 프로그램 1회기 인스톨(Install)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으나 더 강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위기상황 발생 시 관련 전문가에게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와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3회기에 추가로 보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정된 최종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표 25>와 같다.

표 25. 수정된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단계		회기/주제	목표	내용구성
교육	지식 (Knowledge)	1회기 인스톨 (Inst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에 대한 친밀감 및 신뢰감을 형성한다. • 자신의 사이버 세상을 이해하고 활동을 점검한다. 	[도입활동] -프로그램 소개 및 함께 지킬 약속 정하기 -자기소개하기

단계	회기/주제	목표	내용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유형을 알아보고, 사이버폭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한다. 	<p>[주요활동] -사이버 세상 이해하기 -아낌없이 주는 “chat” -사이버폭력의 정의 및 유형 이해하기</p> <p>[마무리활동] -사이버폭력이 미치는 영향 생각해보기 -소감 나누기</p>	
인식 (Awareness)	2회기 시프트 (Shi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공간에서의 나의 역할 유형을 탐색해보고, 올바른 역할에 대해 인식한다. 사이버폭력 상황에서의 주변인 역할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는다. 또래상담자로서 주변인들에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p>[도입활동] -주위 돌아보기</p> <p>[주요활동] -사이버공간에서의 나는? -친구 유형 탐색하기 -유형별 개입방안 탐색하기</p> <p>[마무리활동] -한문장으로 말해요</p>	
기술 (Skills)	3회기 엔터 (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폭력이 범죄임을 이해한다. 사이버폭력 피해친구들을 돕기 위한 정서적, 행동적 대처방법을 익힌다. 	<p>[도입활동] -초성게임</p> <p>[주요활동] -사례로 읽는 사이버폭력 -어마무시한 사이버폭력 예방법 -우리가 만난 사이버폭력</p> <p>[마무리활동] -자율적 도덕 행위자</p>	
활동	실천 (Practice)	4회기 업그레이드 (Upgra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 예절을 익히고 직접 만드는 활동 등을 통해 사이버 시민의식을 함양한다. 사이버폭력 방어자로서 또래상담을 활용한 다양한 실천을 다짐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다. 교실·학교·지역사회에서 또래상담자로서 사이버폭력 예방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주도할 수 있다. 	<p>[도입활동] -프로그램 전과정 돌아보기 (선택) -술리를 지켜라!</p> <p>[주요활동] -네티켓 N계명 만들기 -사이버폭력 방어자로서의 또래상담 실천 다짐하기 -사이버폭력 예방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기획하기(선택)</p> <p>[마무리활동] -‘대삼이의 일기’ 영상 시청 -프로그램 평가 및 소감나누기</p>

V. 요약 및 논의

1. 연구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또래상담자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또래 간 사이버폭력 발생시 개입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자 역량 개발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다.

본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실태와 유형, 원인을 파악하고 개발된 국내외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이버폭력에 노출되었을 때의 심리적 어려움과 적절한 지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도교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래상담 전문가, 청소년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3회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크게 교육과 활동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육은 지식, 인식, 기술 3가지 세부영역으로 활동은 제작, 소통, 조사, 캠페인 4가지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교육 영역에서의 필요정도와 실현가능성은 전반적으로 의견 일치율이 높았지만, 활동 영역에서의 필요정도와 실현가능성은 꽤날마다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설문결과의 각 항목에 대한 평균, 최빈치, 자신의 응답값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교육 및 활동의 각 항목에 대한 필요정도와 실현가능성을 체크하도록 하여 프로그램의 중요한 구성 항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개발된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총 4회기 프로그램으로 교육단계 1회기~3회기, 활동단계 4회기로 구분된다. 각 회기는 50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단계 4회기는 회기 특성상 또래상담 연합회 활동으로 추가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지역 1개 중학교, 부산 지역 2개 중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3학년 또래상담자 64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 32명씩 무선으로 배치하였다.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청소년들의 도덕성 이탈, 사이버불링 대처방식, 공감 능력이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각 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실험 집단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 또래상담자들의 도덕성 이탈 수준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사이버불링 대처방식과 공감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바탕으로 향후 전국 중등학교,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또래상담자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또래 간 사이버폭력 발생 시 개입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자 역량 개발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상담복지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프로그램의 즉시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급단위 단기 프로그램 3회기로 구성된 선행연구의 사이버불링 예방교육 프로그램(이수진, 정혜진, 한희정, 2017)과 유사하게 본 프로그램의 경우 4회기로 구성하여 교구재를 개발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 또래상담자의 역량을 향상함으로써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피해를 경험하는 또래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지지자, 문제해결 조력자로서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덕적 이탈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도덕적 이탈이 주변인의 방어행동을 부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영은, 2019)와 중학생의 도덕적 이탈(인지적 재구성, 피해자 비난)이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정도영, 박주희, 2020)를 지지한다. 그리고 완곡한 언어, 책임 분산, 피해자의 비인간화의 하위요인 사후검사 평균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도덕적 민감성의 발달을 촉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사이버상의 윤리와 관련된 갈등상황 또는 딜레마를 주제로 하는 토론과 대화 활동을 통해 어떠한 행동이 도덕적이고, 어떠한 행동이 비도덕적인지 식별하고 판정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제집단의 하위요인 도움추구 사후검사 평균이 다소 증가한 것은 사이버불링 대처방식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였

던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 대처방식에 관한 질문을 동일한 문항으로 두 번 노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요인이 사이버불링에 대한 거부감을 오히려 줄어든게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공감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하였는데 이는 사이버불링을 당할 때 남학생의 경우 공감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응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신혜정, 2017)를 지지한다.

셋째,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예방 및 조기개입 필요성에 대해 학교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함으로써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에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집단 프로그램이지만 시범운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 운영하여 검증한 한계점이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학생의 학교등교에 제한이 많아서 동일조건으로 시범운영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효과성과 타당성을 지속 검증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 청소년들이 예방적으로 접근하여 돕는 프로그램일 뿐, 개입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또래상담은 또래 청소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함이다. 전문가와 같은 지식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입과정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또래상담자가 혹여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 등을 지속적으로 다루어주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가상준, 김강민, 임재형 (2013). SNS사용문화가 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 **분쟁해결연구**, 11(1) 159-208.
- 강명주, 신민정 (2013). 초등학생의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혼합연구. **어린이재단 연구논문모음집**, 2013, 69-112.
- 강창경 (2017).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사이버불링 개입방안. **청소년문화포럼**, (52), 7-35.
- 교육부 (2019).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교육부 (2020). 제4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 구본용, 구혜영, 이명우 (1994).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구본용, 김용태, 이재규, 박한샘, 공운정 (1995). **청소년의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서울 :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구본용, 이숙영, 송수민, 이상희 (1998). **청소년 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 V**. 서울 :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미윤 (2003). 사이버공간 경험의 의미와 청소년문화. **한국청소년학회**, 10(4), 221-232.
- 김미정, 서미, 배주미, 김래선, 양대회, 성벼리, 전미진, 류아영, 이은별, 홍예진(2015).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연구**, 187.
- 김봉섭, 이원상, 임상수 (2013).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 **정보문화이슈리포트**, 13(1). 한국정보화진흥원.
- 김영은 (2019). **전통적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방어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화 (2018). 어린이와 청소년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분석. **KISDI STAT Report Vol. 18-2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은정 (2015). **초등학교 고학년의 사이버 괴롭힘 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욱, 권진, 박수빈 (2019). 청소년 사이버윤리로서의 SNS과의존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대한 연구. **환경철학**, 28(0), 127-155.
- 김창대 (2011).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 학지사.

- 남재성, 장정현 (2011).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7(3), 101-119.
- 노성덕 (2006). 고등학교 또래상담 정착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두경희, 김계현, 정여주 (2012). 사이버폭력 연구의 동향과 과제: 사이버폭력의 정의 및 유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4), 1581-1607.
- 박경민, 오인수 (2018). 또래간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의 도움요인에 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비교. **한국교육학연구**, 23(3), 77-101.
- 박무원 (2011). 사이버폭력에 대한 형법적 대응. **안암 법학**, 35, 143-182.
- 박성호 (2003). 사이버 공간의 매체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사이버 공간의 자유와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7(1), 75-113
- 박성희 (1997).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서울: 문음사.
- 박종현 (2008). 사이버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지역정보화**, 49, 50-57.
- 박치완 (2019). 신세대(YZ세대)와의 세대공존 문제. **인문학연구**, 116(0), 117-150.
- 반지운, 오인수 (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을 매개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성별 다중집단분석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31(1), 129-156.
- 방송통신위원회 (2019).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도자료(2020년 1월 31일).
- 서미, 양미진, 성벼리, 김혜영, 주지선, 전환희 (201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구성요인 델파이 조사. **청소년상담연구**, 22(1), 281-302.
- 서미, 조영아, 양대회, 문소희, 이은별, 김혜영 (2016). **다문화 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탈북청소년 중심으로-**(청소년상담연구 195),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서미, 천희선, 이혜민, 윤민지, 김승운, 안지영 (2014).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청소년상담연구 178),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서미정, 김경연 (2006).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 유형의 판별변인 분석. **아동학회지**, 27(6), 35-51.
- 손광민, 남상인, 김계현 (2017). 또래상담자의 교육만족과 상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6(3), 59-84.
- 송지연 (2016). **전통적,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방어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동준, 이명진 (2006). 사이버폭력과 그 대책 자율적 통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 149-195.
- 신혜정 (2017). **중학생의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유형별 대처방식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

- 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미진, 서미, 주지선, 김혜영, 성버리, 전환희 (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청소년상담연구 175),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양미진, 서미, 주지선, 전환희, 성버리, 김혜영 (201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개발 연구.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2(2), 363-381.
- 양미진, 이정희, 김범구, 박선영, 김혜영, 전예나 (2018).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 대학생을 중심으로**(청소년상담연구 209),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양방원 (2016).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조절효과분석**.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오인수(2014). 성별에 따른 유형별 공격성과 전통적 괴롭힘 및 사이버 괴롭힘 가해의 관계. **상담학연구**, 15(5), 1871-1885.
- 오인수, 김서정 (2016). 사이버 괴롭힘의 순수피해자, 가피해자, 무경험자에 따른 청소년의 대처방안 차이에 관한 연구. **2016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대구광역시교원연수원.
- 유선미, 김정민, 유승희 (2017).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분노의 매개효과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행경**, 15(3), 103-113.
- 윤경운 (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고은 (2014).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삭 (2016). **초등학생의 사이버 불링 예방을 위한 도덕교육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경, 오인수 (2012). 사이버 괴롭힘과 오프라인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3(2), 137-161.
- 이수진, 정혜진, 한희정 (2017). 한국 청소년 사이버불링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5(2), 107-134.
- 이운로, 윤시순 (2011). **사회복지사를 위한 SPSS**. 서울: 학지사.
- 이종성 (2011). **텔파이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이창호 (2014).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 및 특성. 온라인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School Cyberbullying(학교인터넷따들림) 실태와 대책방안(정책토론회 자료집 14-S412)**, 3-29.

- 이창호, 신나민, 하은빈 (2014).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68.
- 이철선 (2003). 가상공동체에서의 플레이밍에 관한 연구. **마케팅연구**, 18(1), 3-30.
- 이형득, 김정희 (1983). 「Peer Group Counseling의 효과에 관한 일 연구」. **계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8, 41-63.
- 이효정 (2015).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도영, 박주희 (2020). 중학생의 도덕적 이탈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대한가정학회**, 61-74.
- 정문경 (2015).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유능성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2), 195-211.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사이버폭력 피해사례 및 예방 안내서. 서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
- 정여주, 김동일 (2012).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정서조절. **상담학연구**, 13(2), 645-663.
- 정여주, 두경희 (2014).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원인, 결과, 개입에 대한 연구 동향. -예방상담학적 관점에서-. **청소년학연구**, 21(8), 373-406.
- 정완 (2005).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피해자실태연구**, 13(2), 329-359.
- 정완 (2009).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저스티스**, 109, 7-72.
- 정은혜 (2017). **초등학교 고학년의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집단예술치료 프로그램 연구 : -자기통제력을 중심으로-**. 한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아라, 이정윤 (2010). 사이버공간에서의 악성댓글 사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8(2), 117-131.
- 최유진, 홍승희 (2012). 사이버불링에 관한 미국의 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최진오 (2013).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사이버불링이 인터넷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8(6), 175-184.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9). 2019 청소년 통계 ‘VII. 관계 및 의식’.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 2019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사이버어울림 활용가이드. 교육자료 TM 2019-9.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집단상담프로그램 2019 개정판. 교육자료 TM 2019-28.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e-나라지표 ‘가구 인터넷 보급률 및 컴퓨터 보유율’ .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9). 2019년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결과보고집.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또래상담 홈페이지. www.peer.or.kr.
- 황상민 (2000). 신세대의 자기표현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상호작용: 사고와 행동 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3(3), 9-19.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 Aricak, T., Siyahhan, S., Uzunhasanoglu, A., Saribeyoglu, S., Ciplak, S., Yilmaz, N., & Memmedov, C. (2008). Cyberbullying among Turkish adolescents. *Cyberpsychology & Behavior*, 11(3), 253-261.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echanism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364-374.
- Beran, T., & Li, O.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bullying and School Bullying. *Journal of Student Wellbeing*, 1(2), 15-33.
- Carr, R. A. (1993). Peer helping in canada. *The Peer Facilitator Quarterly*, 11(1), 15-18.
- Chapell, M. S., Hasselman, S. L., Kitchin, T., Lomon, S. N., MacIver, K. w., & Sarullo P. L. (2006). Bullying in elementary school, high school, and college. *Adolescence*, 41, 633-648.
- Chickering, J. N. (1987). *Warmline Training Manual: Peer Counseling Returning Adult Students*. New York: ERIC Clearinghouse.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eutsch, C, Michel, B, & Swartz, S. (2003). Peer Education as a rigorous technology for South Africa. *AIDS Bulletin*, 12(2), 8-10.
- Faccio, E, Iudici, A, Costa, N, Belloni, E. (2014). cyberbullying and interventions programs in school and clinical setting.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22, 500-505.
- Finkelhor, D., Mitchell, K., & Wolak J. (2000). online victimization : *A report on*

- the nation's youth*.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Retrieved from www.unh.edu/ccrc/Youth_Internet_info_page.html
- Gray, H. D., & Tindall, A. J. (1978). Peer counseling—in depth look at training peer helpers. Washington : Accelerated Development.
- Hamburg, B., & Varenhorst, B. B. (1972). Peer counseling in the secondary schools: A community mental health project for youth.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2(4), 566-581.
- Hay, C., Meldrum, R., & Mann, K. (2010). Traditional bullying, cyber bullying, and deviance: A general strain theory approach.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6(2), 130-147.
- Kowalski, R. M., & Fedina, C. (2011). Cyber bullying in ADHD and Asperger Syndrome populations. *Research in Autism Spectrum Disorders*, 5(3), 1201-1208.
- Lenhart, A., Madden, M., Smith, A., Purcell, K., Zickuhr, K., & Rainie, L., (2011). *Teens, Kindness and cruelty on social network sites*.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re.
- Lucian, J. (1977). 'Training College Peer Counselor'.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18, 66-67
- Machackova, H., Cerna, A., Sevcikova, A., Dedkova, L., & Daneback, K. (2013). Effectiveness of coping strategies for victims of cyberbullying. *Cyberpsychology : Journal of Psychosocial Research on Cyberspace*, 7(3).
- Palladino, B. E., Nocentini, A., & Menesini, E. (2012). Online and offline peer led models against bullying and cyberbullying. *Psicothema*, 24(4), 634-639.
- Patchin, J. W., & Hinduja, S. (2006). Bullies move beyond the schoolyard: A preliminary look at cyberbullying.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4, 148-169.
- Privette, G., & Delawder, J. E. (1982). Academic peer counseling: Advising with a personal touch.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5(2), 109-114.
- Riccardi, B. K. (2008). *Cyber bullying: Responsibilities and solutions*. New York: Rice High School.

- Rigby, K. (2008). *Children and bullying: How parents and educators can reduce bullying at school*. MA: Blackwell
- Slonje, R., & Smith, P. K. (2008). Cyberbullying: Another main type of bullying?.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9(2), 147-154.
- Smith, P. K. (2012). Cyberbully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a research program—A response to Olweus (2012).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9(5), 553-558.
- Smith, P. K., Mahdavi, J., Carvalho, M., Fisher, S., Russell, S., Tippett, N. (2008). Cyberbullying : Its nature and impact in secondary school pupil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 376-385.
- Snakenborg, J., Van Acker, R., & Gable, R. A. (2011). Cyberbullying : Prevention and intervention to protect our children and youth. *Preventing School Failure*, 55(2), 88-95.
- Thompson, F., & Smith, P. K. (2011). *The use and effectiveness of anti-bullying strategies in schools* (Department for Education Research Report DFE-PR098).
- Topcu, Ç., & Erdur-Baker, Ö. (2012). Affective and cognitive empathy as mediators of gender differences in cyber and traditional bullying.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3(5), 550-561.
- Varenhorst, B. B. (1984). Peer counseling : Past promis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In D.Brown & R.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New York : John Wiley & Sons.
- Vriend, T. J. (1969). High-performing inner-city adolescents assist low-performing peers in counseling groups.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7(9), 897-904.
- Watts, L. K., Wagner, J., Velasquez, B., & Behrens, P. I. (2017). Cyberbullying in higher education: A literature review.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9, 268-274.
- Willard, N. (2006).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s: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online social cruelty, threats, and distress*. Eugene, OR: Center for Safe and Responsible Internet Use.

부 록

-
1. 델파이 1차 질문지(또래상담자용, 전문지도자용, 지도교사용)
 2. 델파이 2차 질문지
 3. 델파이 3차 질문지
 4. 도덕적 이탈 척도
 5. 사이버불링 대처능력 척도
 6. 공감 능력 척도
-

[부록 1] 델파이 1차 질문지(또래상담자용, 전문지도자용, 지도교사용)

**사이버폭력 예방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1차 델파이 질문지 [또래상담자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본 델파이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사이버폭력 예방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위해 총 3회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사이버폭력 예방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전적으로 연구의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폭력예방부

문의 : 청소년폭력예방부 부장 김태성(T.051-662-3090)

청소년폭력예방부 부원 박선영(T.051-662-3092)

청소년폭력예방부 부원 오여원(T.051-662-3093)

다음은 자료 분석을 위해 필요한 인적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 체크 또는 응답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구분	응답 내용
1	이름	
2	지역	서울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울산 <input type="checkbox"/> 세종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3	소속	
4	학년	중학교 1학년 <input type="checkbox"/> / 중학교 2학년 <input type="checkbox"/> / 중학교 3학년 <input type="checkbox"/>
5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 여 <input type="checkbox"/>
6	또래상담 활동기간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 1년 이상 ~ 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 3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 델파이 질문지는 또래상담 지도교사 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분께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사내용에 대한 안내

[설문 응답 방법]

1. 개요를 읽고 내용을 숙지합니다.
2. 본 개방형 질문에 성실히 응답합니다.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요]

1) 솔리언(solian)이란?

솔리언(solian)이란?

solve(해결하다)+ian(사람을 뜻하는 접미어)의 합성어로 또래의 고민을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는 친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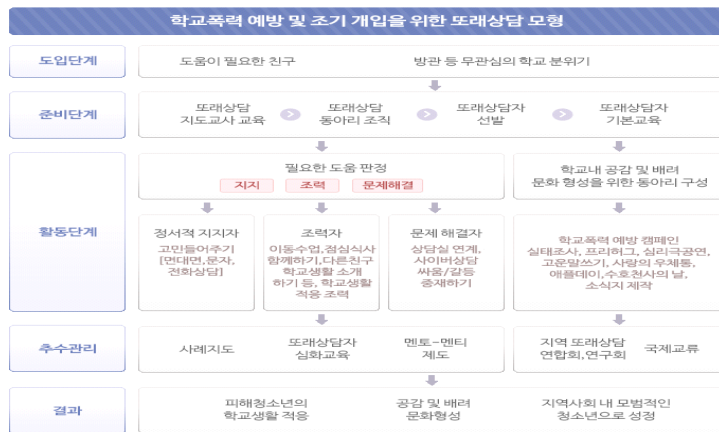
2) 또래상담이란?

또래상담이란?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경험 및 가치관 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에 있는 다른 또래들의 고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조력하고, 이들이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생활의 제반 영역에서 지지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 솔리언 또래상담

솔리언 또래상담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작하고 보급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고유명칭이며, 2007년 솔리언또래상담이라는 명칭으로 또래상담을 브랜드화 하였습니다.



[솔리언 또래상담 운영모형]

질문지

【솔리언 또래상담 기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래상담자들의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발전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

3.

4.

5.

.

.

.

(페이지 추가 가능)

사이버폭력 예방 솔루션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1차 델파이 질문지 [또래상담자 전문지도자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본 델파이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사이버폭력 예방 솔루션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위해 총 3회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사이버폭력 예방 솔루션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전적으로 연구의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폭력예방부

문의 : 청소년폭력예방부 부장 김태성(T.051-662-3090)

청소년폭력예방부 부원 박선영(T.051-662-3092)

청소년폭력예방부 부원 오여원(T.051-662-3093)

다음은 자료 분석을 위해 필요한 인적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 체크 또는 응답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구분	응답 내용
1	이름	
2	소속	
3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 여 <input type="checkbox"/>
4	연령	3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 30세 이상 ~ 4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40세 이상 ~ 5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 50세 이상 ~ 6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60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5	또래상담(사업) 운영경력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 1년 이상 ~ 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 2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 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 5년 이상 ~ 7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 10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6	최종학력	대졸 <input type="checkbox"/> / 석사 수료 <input type="checkbox"/> / 석사 <input type="checkbox"/> / 박사 수료 <input type="checkbox"/> / 박사 <input type="checkbox"/>
7	최종전공	사회복지학 <input type="checkbox"/> / 심리학 <input type="checkbox"/> / 교육학 <input type="checkbox"/> / 아동학 <input type="checkbox"/> 가족학 <input type="checkbox"/> / 청소년학 <input type="checkbox"/> / 기타 <input type="checkbox"/> _____
8	수당지급 계좌번호	*수당지급명세서(별도 첨부)

※ 델파이 질문지와 수당지급명세서를 반드시 함께 e-mail(peer@kyci.or.kr)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내용에 대한 안내

[설문 응답 방법]

1. 개요를 읽고 내용을 숙지합니다.
2. 본 개방형 질문에 성실히 응답합니다.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요]

1) 솔리언(solian)이란?

솔리언(solian)이란? solve(해결하다)+ian(사람을 뜻하는 접미어)의 합성어로 또래의 고민을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는 친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또래상담이란?

또래상담이란?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경험 및 가치관 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에 있는 다른 또래들의 고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조력하고, 이들이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생활의 제반 영역에서 지지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 솔리언 또래상담

솔리언 또래상담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작하고 보급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고유명칭이며, 2007년 솔리언또래상담이라는 명칭으로 또래상담을 브랜드화 하였습니다.



[솔리언 또래상담 운영모형]

질문지

[솔리언 또래상담 기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래상담자들의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발전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

3.

4.

5.

.
. .
.

(페이지 추가 가능)

사이버폭력 예방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1차 델파이 질문지 (지도교사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본 델파이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사이버폭력 예방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위해 총 3회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사이버폭력 예방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전적으로 연구의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폭력예방부

문의 : 청소년폭력예방부 부장 김태성(T.051-662-3090)

청소년폭력예방부 부원 박선영(T.051-662-3092)

청소년폭력예방부 부원 오여원(T.051-662-3093)

다음은 자료 분석을 위해 필요한 인적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 체크 또는 응답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구분	응답 내용
1	이름	
2	소속	
3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 여 <input type="checkbox"/>
4	연령	3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 30세 이상 ~ 4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40세 이상 ~ 5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 50세 이상 ~ 6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60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5	또래상담(사업) 운영경력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 1년 이상 ~ 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 2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 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 5년 이상 ~ 7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 10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6	최종학력	대졸 <input type="checkbox"/> / 석사 수료 <input type="checkbox"/> / 석사 <input type="checkbox"/> / 박사 수료 <input type="checkbox"/> / 박사 <input type="checkbox"/>
7	최종전공	사회복지학 <input type="checkbox"/> / 심리학 <input type="checkbox"/> / 교육학 <input type="checkbox"/> / 아동학 <input type="checkbox"/> 가족학 <input type="checkbox"/> / 청소년학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_____
8	수당지급 계좌번호	*수당지급명세서(별도 첨부)

※ 델파이 질문지와 수당지급명세서를 반드시 함께 e-mail(peer@kyci.or.kr)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내용에 대한 안내

[설문 응답 방법]

1. 개요를 읽고 내용을 숙지합니다.
2. 본 개방형 질문에 성실히 응답합니다.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요]

1) 솔리언(solian)이란?

솔리언(solian)이란 solve(해결하다)+ian(사람을 뜻하는 접미어)의 합성어로 또래의 고민을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는 친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또래상담이란?

또래상담이란?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경험 및 가치관 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에 있는 다른 또래들의 고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조력하고, 이들이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생활의 제반 영역에서 지지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 솔리언 또래상담

솔리언 또래상담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작하고 보급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고유명칭이며, 2007년 솔리언또래상담이라는 명칭으로 또래상담을 브랜드화 하였습니다.



[솔리언 또래상담 운영모형]

질문지

[솔리언 또래상담 기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래상담자들의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발전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

3.

4.

5.

·
·
·

(페이지 추가 가능)

사이버폭력 예방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2차 델파이 질문지

※ 다음은 사이버폭력 예방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구성 내용 중 **또래상담자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이버폭력 예방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에서의 필요한 정도와 실현가능 정도를 체크(✓)해 주시고, **우선순위를 10위까지**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프로그램 필요 정도							번호	사이버폭력 예방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내용	② 실현가능정도				③ 우선순위
매우 불필요	↔ 보통 ↔				매우 필요	불가능 ↔ 가능				우선순위			
1	2	3	4	5	6	7			1	2	3	4	
							1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의(개념, 특징) 교육이 필요하다.					
							2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실태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	실제 사례를 활용한 사이버 폭력 유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4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다중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률 교육이 필요하다.					
							6	지식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또래친구들에게 접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상황에 대한 사전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7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 사후개입에 대한 내용 교육이 필요하다.					
							8	사이버폭력을 방관(묵인)하거나 동조(가담)하지 않고 방어(조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것(지식과 정보, 연계 기관 및 인적 지지 체계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9	N번방 사건 등을 제시하여 사이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① 프로그램 필요 정도							② 실현가능성				③ 우선순위	
매우 불필요		↔ 보통 ↔			매우 필요		불가능 ↔ 가능				우선순위	
1	2	3	4	5	6	7	1	2	3	4		
							번호	사이버폭력 예방 솔루션 또래상담 프로그램 내용				
							10	사이버공간 활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11	사이버폭력의 사후적 조치보다 사전적 예방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이 필요하다.				
							12	온라인 시민의식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				
							13	가상공간에서의 행위도 반드시 책임과 처벌이 뒤따른다는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14	사이버 공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15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또래상담자로서의 자기이해(성격, 기질, 타인과의 관계패턴 등) 교육이 필요하다.				
							16	사이버폭력에 대한 감수성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				
							17	또래상담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과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또래상담자의 역할 한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사이버 관련 스토킹, 성폭력, 명예훼손 등의 문제).				
							18	인식 피해 청소년을 발견하는 시각(신고나 사인 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19	또래친구가 사이버폭력을 겪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학교폭력 주변인(방관자, 동조자, 방어자)의 행동 또는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교육이 필요하다.				
							20	온라인상에서의 언어적 폭력(저격글, 단톡지옥, 게시형 폭력 등)에서 오프라인 만남을 통한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21	일상 속에 암묵적으로 자리 잡은 비속어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22	나의 사이버공간 활용을 점검해보는 교육이 필요하다(예, 사이버 예절 등).				
							23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이버폭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교육이 필요하다.				

① 프로그램 필요 정도							② 실현가능정도				③ 우선순위		
매우 불필요		↔ 보통 ↔			매우 필요		번호	사이버폭력 예방 솔루션 또래상담 프로그램 내용	불가능 ↔ 가능				우선순위
1	2	3	4	5	6	7			1	2	3	4	
							24	나는 학교폭력 상황에서 어떤 유형인지(방관자, 동조자, 방어자, 가해자, 피해자 등) 자가테스트를 해보는 내용이 필요하다.					
							25	실제 사례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26	실제 사례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27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28	또래상담자가 피해자 개입 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29	또래상담자가 피해 청소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존감 향상 기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0	또래상담자가 피해 청소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기주장 능력 향상 기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1	기 술 또래상담자의 소진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32	또래상담자의 자기표현 및 주장 등의 의사소통과 공격 및 충동, 분노 등의 정서 조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3	또래상담자로서 스스로를 안전한 영역에 두면서 할 수 있는 조력행동에 대한 토의(행동리스트 도출)가 필요하다.					
							34	사이버폭력 피해청소년에 대한 또래상담자의 조력활동 등 개입방안 교육이 필요하다(예. 감정다루기, 안부문자하기 등)					
							35	공감반응하기, 대화를 통한 불안감 해소하기 등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6	주변의 지지, 회피행동, 인지적 사고의 전환 등 사이버폭력의 극복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7	명상, 놀이, 음악, 미술 등 콘텐츠를 활용한 상담역량 강화교육이 필요하다.					

① 프로그램 필요 정도							② 실현가능성도				③ 우선순위		
매우 불필요		↔ 보통 ↔			매우 필요		번호	사이버폭력 예방 솔루션 또래상담 프로그램 내용	불가능 ↔ 가능				우선순위
1	2	3	4	5	6	7			1	2	3	4	
									38	경청, 공감보다 더 심화된 상담 기법이나 전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9	대인관계 향상(친구 배려하기)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40	피해자 간접 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교육이 필요하다.					
							41	메신저, SNS 등 온라인상에서의 상담, 교사 및 부모와의 면대면 상담 등 수퍼비전 교육이 필요하다.					
							42	실제 사례를 역할극으로 해봄으로써 피해자의 혼란스러운 불안 등의 감정을 직접 경험해보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교육이 필요하다.					
							43	강의식 설명보다 토론, 활동(퀴즈, 동영상 만들기, 보드게임, O.X퀴즈 등)으로 교육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음은 사이버폭력 예방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구성 내용 중 **또래상담자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이버폭력 예방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에서의 필요한 정도와 실현가능 정도를 체크(√)해 주시고, **우선순위를 10위까지**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프로그램 필요 정도							② 실현가능정도				③ 우선순위			
매우 불필요		↔ 보통 ↔			매우 필요		번호	사이버폭력 예방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내용	불가능 ↔ 가능				우선순위	
1	2	3	4	5	6	7			1	2	3	4		
							1	제작	사이버 폭력예방 활동(15초 광고·카툰 이모티콘 제작 및 5행시 짓기 등)을 직접 제작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2		학교 내에서 청소년 시선에 맞는 사이버 폭력 예방법 숙지를 위해 또래상담자 동아리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가이드라인 포스터를 만드는 활동이 필요하다.					
							3		PC, 휴대폰 사용이 높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앱을 만들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4		'선생님, 부모님! 사이버폭력을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학교나 가정에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도움받고 싶은 내용을 뽑아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사와 부모에게 제공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5	소통	또래상담자 오픈채팅방을 통해 언제든지 피해 청소년들이 마음편하게 도움을 요청(익명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사이버 또래상담자의 날'을 지정하여 카톡방에서의 칭찬 릴레이를 하거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이버폭력 예방 카드를 만들어 올리고 친구들을 태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7		학급신문을 만들어서 소감 선물을 달고, 선물을 단 친구를 칭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8	조사	학교 내에서 언어폭력 실태조사 등의 또래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9		학교, 지역사회 연계 기관 대상 온라인 순회 및 열람 활동이 필요하다.					
							10	캠페인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이 필요하다(법안 만들기 등).					
							11		학교 내에서 직접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캠페인, 사이버폭력 예방의 날, 미디어 인권챌린지 등)이 필요하다.					

[부록 3] 델파이 3차 질문지

사이버폭력 예방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3차 델파이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또래상담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위해 프로그램 교육 및 활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적 합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1, 2차 질문지에서 보내주셨던 고견을 바탕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문항, 활동문항으로 설문지가 재구성 되었으며, 2차 설문에서의 각 문항에 대한 평균값과 최빈치, 본인의 응답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차 설문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필요정도와 실현가능정도를 다시 체크해주시고 각 문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술해 주십시오.

매우 바쁘시겠지만 3차 설문지는 7월 24일(금)까지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시)

사이버 폭력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2차 설문지			① 필요한 정도			2차 설문지			② 실현가능성		③ 의견
		평균	최빈치	본인 응답	매우 필요	보통	매우 불필요	평균	최빈치	본인 응답	가능	불가능	
번호	1	6.0	7		∨			3.7	4			∨	
	2	6.3	7		∨			3.7	4		∨		
	3	6.3	7				∨	3.7	4			∨	

※ 다음은 사이버폭력 예방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구성 내용 중 **또래상담자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① 필요한 정도, ② 실현가능성도에 대하여 해당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시고, ③ 의견란에는 해당 교육 내용에 대해 재진술되어야 할 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예: 다른 항목과의 통합, 삭제 필요,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폭력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2차 설문지			① 필요한 정도			2차 설문지			② 실현가능정도		③ 의견
번호	내용	평균	최빈치	본인 응답	매우 필요	보통	매우 불필요	평균	최빈치	본인 응답	가능	불가능	
1	지식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의(개념, 특징) 교육이 필요하다.	6.0	7					3.7	4			
2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실태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3	7					3.7	4			
3		실제 사례를 활용한 사이버 폭력 유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3	7					3.7	4			
4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다중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6	6					3.3	3			
5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률 교육이 필요하다.	5.8	6					3.3	3			
6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또래친구들에게 접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상황에 대한 사전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6.1	7					3.4	4			
7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 사후개입에 대한 내용 교육이 필요하다.	5.7	6					3.2	4			
8		사이버폭력을 방관(묵인)하거나 동조(가담)하지 않고 방어(조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것(지식과 정보, 연계 기관 및 인적 지지 체계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4	7					3.6	4			
9		N번방 사건 등을 제시하여 사이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3	6					3.7	4			

사이버 폭력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2차 설문지			① 필요한 정도			2차 설문지			② 실현가능정도		③ 의견
번호	내용	평균	최빈치	본인 응답	매우 필요 ↔	보 통 ↔	매우 불 필 요	평균	최빈 치	본인 응답	가 능 ↔	불 가 능	
10	사이버 활용을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5.6	7					3.5	4				
11	사이버폭력의 사후적 조치보다 사전적 예방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이 필요하다.	6.0	7					3.6	4				
12	가상공간에서의 행위도 반드시 책임과 처벌이 뒤따른다는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5.3	6					3.3	4				
13	온라인 시민의식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	6.5	7					3.7	4				
14	사이버 공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5.8	6					3.5	4				
15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또래상담자로서의 자기 이해(성격, 기질, 타인과의 관계패턴 등) 교육이 필요하다.	5.4	6					3.4	4				
16	사이버폭력에 대한 감수성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	5.8	6					3.3	4				
17	인식 또래상담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과 도움을 청해야하는 상황(또래상담자의 역할 한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사이버 관련 스토킹, 성폭력, 명예훼손 등의 문제).	6.3	7					3.6	4				
18		피해 청소년을 발견하는 시각(신호나 사인 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2	7				3.3	4				
19		또래친구가 사이버폭력을 겪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학교폭력 주변인(방관자, 동조자, 방어자)의 행동 또는 태도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6.3	7				3.5	4				

사이버 폭력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2차 설문지			① 필요한 정도			2차 설문지			② 실현가능정도		③ 의견
번호	내용	평균	최빈치	본인 % 답	매 우 필 요 ↔	보 통 ↔	매 우 불 필 요	평균	최빈치	본인 응 답	가 능 ↔	불 가 능	
20	온라인상에서의 언어적 폭력(저격글, 단독지옥, 게시형 폭력 등)에서 오프라인 만남을 통한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1	7					3.4	4				
21	일상 속에 암묵적으로 자리 잡은 비속어 사용에 대해 생각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5.6	6					3.3	4				
22	나의 사이버공간 활용을 점검해보는 교육이 필요하다(예, 사이버 예절 등).	5.5	6					3.4	4				
23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이버폭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교육이 필요하다.	5.8	6					3.2	3				
24	나는 어떤 유형인지(방관자, 동조자, 방어자, 가해자, 피해자 등) 자가테스트를 해보는 내용이 필요하다.	5.9	7					3.4	4				
25	실제 사례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4	7					3.7	4				
26	실제 사례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4	7					3.7	4				
27	사이버 공간에 대한 올바른 활용 방법 교육이 필요하다.	5.7	6					3.4	4				
28	기술 또래상담자가 피해자 개입 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6.1	7					3.4	4				
29	또래상담자가 피해 청소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존감 향상 기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4	5					2.8	3				
30	또래상담자가 피해 청소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기주장능력 향상 기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5	5					2.9	3				

사이버 폭력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2차 설문지			① 필요한 정도			2차 설문지			② 실현가능정도		③ 의견
번호	내용	평균	최빈치	본인 응답	매우 필요	보 통	매우 불 필 요	평균	최빈 치	본인 응답	가 능	불 가 능	
31	또래상담자의 소진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5.2	6					2.9	3				
32	또래상담자의 자기표현 및 주장 등의 의사소통과 공격 및 총동, 분노 등의 정서 조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9	6					3.3	3				
33	또래상담자로서 스스로를 안전한 영역에 두면서 할 수 있는 조력행동에 대한 토의(행동리스트 도출)가 필요하다.	6.0	7					3.3	3				
34	사이버폭력 피해청소년에 대한 또래상담자의 조력활동 등 개입방안 교육이 필요하다(예. 감정다루기, 안부문자하기 등)	6.3	7					3.6	4				
35	공감반응하기, 대화를 통한 불안감 해소하기 등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6.1	6					3.6	4				
36	주변의 지지, 회피행동, 인지적 사고의 전환 등 사이버폭력의 극복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8	6					3.2	3				
37	명상, 놀이, 음악, 미술 등 콘텐츠를 활용한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하다.	5.0	4					2.9	4				
38	경청, 공감보다 더 심화된 상담 기법이나 전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3	4					3.0	3				
39	대인관계 향상(친구 배려하기)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5.3	7					3.4	4				
40	피해자 간접 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교육이 필요하다.	5.8	7					3.2	3				
41	메신저, SNS 등 온라인상에서의 상담, 교사 및 부모와의 면대면 상담 등 수퍼비전 교육이 필요하다.	5.4	6					2.9	4				

사이버 폭력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2차 설문지			① 필요한 정도			2차 설문지			② 실현가능정도		③ 의견
번호	내용	평균	최빈치	본인 응답	매우 필요 ↔ 보통 ↔ 매우 불필 요	평균	최빈 치	본인 응답	가 능 ↔ 불 가 능				
42	실제 사례를 역할극으로 해봄으로써 피해자의 혼란스러움 불안 등의 감정을 직접 경험해보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교육이 필요하다.	5.5	6			2.9	3						
43	강의식 설명보다 토론, 활동(퀴즈, 동영상 만들기, 보드게임, O.X퀴즈 등)으로 교육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7			3.4	4						

※ 다음은 사이버폭력 예방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구성 내용 중 **또래상담자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① 필요한 정도, ② 실현가능성도에 대하여 해당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시고, ③ 의견란에는 해당 교육 내용에 대해 재진술되어야 할 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예: 다른 항목과의 통합, 삭제 필요,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폭력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2차 설문지			② 실현가능정도			2차 설문지			② 실현가능정도		③ 의견		
번호	내용	평균	최빈치	본인응답	매우필요	↔	보통	↔	매우불필요	평균	최빈치	본인응답		가능	↔
1	제작	사이버 폭력예방 활동(15초 광고·카톡 이모티콘 제작 및 5행시 짓기 등)을 직접 제작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2		학교 내에서 청소년 시선에 맞는 사이버 폭력 예방법 숙지를 위해 또래상담자 동아리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가이드라인 포스터를 만드는 활동이 필요하다.													
3		PC, 휴대폰 사용이 높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앱을 만들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4		'선생님, 부모님! 사이버폭력을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학교나 가정에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도움받고 싶은 내용을 뽑아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사와 부모에게 제공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5	소통	또래상담자 오픈채팅방을 통해 언제든지 피해 청소년들이 마음편하게 도움을 요청(익명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사이버 또래상담자의 날'을 지정하여 카톡방에서의 칭찬 릴레이를 하거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이버폭력 예방 카드를 만들어 올리고 친구들을 태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설문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도덕적 이탈, 사이버폭력 대처능력, 공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니 설문지를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골라 솔직하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응답해 주신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모두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설문결과는 대학생용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폭력예방부 -

※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성 별 : ① 남 ② 여
- 2. 학 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 3. 활동경력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2년 미만 ③ 2년 이상~3년 미만
 ④ 3년 이상

각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싸움하는 것은 괜찮다.	1	2	3	4
2	우리 가족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을 때리는 것은 괜찮다.	1	2	3	4
3	내가 속한 집단의 권위가 떨어지거나 도전받았을 때 싸우는 것은 괜찮다.	1	2	3	4
4	친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1	2	3	4
5	다른 아이를 밀치거나 때리는 것은 일종의 장난이다.	1	2	3	4
6	알미운 아이를 때리는 것은 그 아이가 잘못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1	2	3	4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에 비하면, 남의 물건을 손상시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1	2	3	4
8	많은 돈을 훔치는 것에 비하면, 적은 돈을 훔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1	2	3	4
9	다른 아이를 때리는 것에 비하면, 깔보며 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1	2	3	4
10	심각한 불법 행동에 비하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이 아니다.	1	2	3	4
11	나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이가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아이를 비난할 수 없다.	1	2	3	4
12	만약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아이가 나쁜 행동을 한다면, 그 아이를 비난할 수 없다.	1	2	3	4
13	주위 친구들을 따라 나쁜 말을 쓰는 아이를 비난할 수 없다.	1	2	3	4
14	친구가 강제로 시켜서 나쁜 행동을 한 아이를 탓할 수는 없다.	1	2	3	4
15	집단적으로 폭행한 경우, 그 집단의 한 아이에게만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된다.	1	2	3	4
16	다른 아이들도 잘못했다면, 그러한 잘못을 먼저 하자고 제안한 아이만 혼내서는 안 된다.	1	2	3	4
17	여럿이서 나쁜 행동을 하자고 결정했다면, 집단 내 한 아이만 나쁘다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1	2	3	4
18	집단이 한 나쁜 행동에 대해 한 아이에게만 책임지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1	2	3	4
19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사소한 거짓말은 해도 괜찮다.	1	2	3	4
20	다른 아이에게 관심의 표현으로 놀리는 것은 괜찮다.	1	2	3	4
21	다른 아이를 놀리는 것은 그 아이에게 반드시 상처가 되지 않는다.	1	2	3	4
22	아이들끼리 깔보고 욕하는 것은 상처가 되지 않는다.	1	2	3	4
23	짐승 취급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들이 있다.	1	2	3	4
24	비겁하고 추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	1	2	3	4
25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 대접을 받을 가치가 없다.	1	2	3	4
26	부드럽게 대해서 안 통하는 사람들은 거칠게 다루어야 한다.	1	2	3	4
27	물건을 훔친 사람보다 부주의해서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	1	2	3	4
28	또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대개 그럴만한 행동을 한다.	1	2	3	4
29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부모가 너무 강제적으로 대한 것에 원인이 있다.	1	2	3	4

[부록 5] 사이버불링 대처능력 척도

각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괴롭힘 기록을 캡처하거나 녹음하여 증거로 남긴다.	1	2	3	4
2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전원을 꺼서 괴롭힘을 차단한다.	1	2	3	4
3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카톡, 카스 등의 앱을 지워 괴롭힘을 차단한다.	1	2	3	4
4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괴롭힘 차단 앱을 설치하여 폭력 메시지를 차단한다.	1	2	3	4
5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카톡, 카스 등에서 탈퇴하여 괴롭힘을 차단한다.	1	2	3	4
6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가해자에게 직접 욕을 하며 화를 낸다.	1	2	3	4
7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괴롭힘 행동을 비난하며 직접 공격한다.	1	2	3	4
8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가해자의 인격을 모독한다.	1	2	3	4
9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괴롭힘에 맞대응하여 보복한다.	1	2	3	4
10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가해자가 화가 나도록 적극적으로 공격한다.	1	2	3	4
11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괴롭힘 행동을 비꼰다.	1	2	3	4
12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가해자를 놀리며 화를 부추긴다.	1	2	3	4
13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괴롭힘을 빈정대며 은근히 가해자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	1	2	3	4
14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괴롭혀도 소용없다고 놀린다.	1	2	3	4
15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비웃으며 가해자를 화나게 만든다.	1	2	3	4
16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1	2	3	4
17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부모님께 알린다.	1	2	3	4
18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	2	3	4
19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한다.	1	2	3	4
20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상담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1	2	3	4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괴롭힘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	1	2	3	4
22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괴롭힘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반응한다.	1	2	3	4
23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모른척하며 무시한다.	1	2	3	4
24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괴롭힘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1	2	3	4
25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괴롭힌 아이를 만만하게 여기며 무시한다.	1	2	3	4
26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핑계를 대며 괴롭힘 상황을 피한다.	1	2	3	4
27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화제를 바꾸며 괴롭힘 상황을 피한다.	1	2	3	4
28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바로 대응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룬다.	1	2	3	4
29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대응하지 않고 가해자를 피한다.	1	2	3	4
30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괴롭힘 상황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31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가해자의 괴롭힘에 순응한다.	1	2	3	4
32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준다.	1	2	3	4
33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괴롭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1	2	3	4
34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가해자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	1	2	3	4
35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가해자의 괴롭힘을 그냥 참는다.	1	2	3	4
36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괴롭힘 행위를 잘못되었다고 명확하게 알려준다.	1	2	3	4
37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가해자에게 내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1	2	3	4
38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알려준다.	1	2	3	4
39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가해자의 요구를 분명하게 거절한다.	1	2	3	4
40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이버 상에서 괴롭힘 행동을 그만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1	2	3	4

[부록 6] 공감 능력 척도

각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친구를 욕하기 전에, 내가 만일 그 친구라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1	2	3	4
2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별로 듣지 않는다.	1	2	3	4
3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능한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4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본다.	1	2	3	4
5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잠시나마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6	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1	2	3	4
7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아도 별로 동정심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1	2	3	4
8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면 그에 대해 정말로 염려되는 때가 자주 있다.	1	2	3	4
9	다른 사람이 불행하다고 해서 나까지 마음이 아플 필요는 없다.	1	2	3	4
10	내 주변에서는 감동스러운 일이 자주 일어난다.	1	2	3	4

Abstract

Development of the Peer Counseling Program for Cyber Violence Prevention

A recent proliferation of the super-speed Internet and high-tech digital devices is bringing a new world where smart phones treat a number of things including household chores, shopping, payment by cards, banking, and taking educational lectures etc. In a similar vein, adolescents are using the Internet and smart phones in a more and more extensive way. This situation is, on one hand, positive because it allows the young people to rapidly form or express cultures that reveal their own personalities. But on the other hand, it has many of adverse effects such as cyber addiction and its negative consequences, privacy violation, delinquencies, illegal gambling and cyber violence. In particular, a remarkably emerging issue that is really severe is cyber violence, an act that alienates and deliberately bullies young others in the cyber space.

Adolescents who have ever been bullied by cyber violence might become bullies that commit that violence. Cyber violence may make young people even more obsessed with negative emotions including depression, anxiety and suicidal intention because it may become a way of bullying all day long without the limits of time and space unlikely in physical violence. Moreover, anonymity or bystanding from others that often features cyber violence is likely a big obstacle to preventing cyber violence among adolescents or intervening against damage from the on-line attack.

In 2009, a British charity group, Betabullying introduced a fresh virtual peer supports system called Cyber Mentors. Currently, Korea also has a similar system that brings up cyber mentors who would become peer counselors working on the problem of cyber bullying after completing the course of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provided by cyber schools. Still, however, the prevention of cyber violence, intervention in the problem, or education for anti-cyber violence haven't ever been researched in this coun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distribute a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competence improvement of peer counselors, who would in turn

promote the public awareness of adolescents' cyber violence as well as digital citizenship, ultimately preventing such violence among peers.

In order to develop a peer counseling program for cyber violence prevention, this study used Kim Chang-dae et al.'s(2011) three steps of program development like planning, composition, and execution and evaluation. In the step of planning, accordingly, the study made a literature review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types and causes of cyber violence among adolescents and examine local and foreign programs for cyber violence prevention, if any. Additionally, this research made the delphi survey of 51 persons, more exactly, 2 academic specialists, 14 school teachers in charge of peer counseling instruction, 17 peer counseling experts working for the youth counseling welfare center and 18 middle school students as peer counseling. That survey was to obtain information about psychological troubles from exposure to cyber violence and about supportive measures that are suitable against the problem.

In the step of composition, this study set up principles of program structuring and operation based on outcomes from the previous step and then prepared the detailed content and activity sheets of program. Through these moves, a draft version of the program which the study would finally develop was created. The principles as mentioned above can be briefly described in the following. First, the program is applied to middle school students as peer counselors who have completely learned the basics of the Solian peer counseling. For those counselors, that program could be an educational supplementation that improves their competence. Second, the program is composed of 4 sessions, more specifically, 3 of education and 1 of activity. Here, the former three sessions are classified as the stages of knowledge, awareness and skill, respectively. While, the latter one session is redefined as the stage of practice. Each session has the time length of 50 minutes, except the session of activity that is characteristic of becoming possibly extended as a part of activities that the Association of Peer Counseling would make. And third, the program provides the 1st to 3rd sessions of education in sequence, followed by the session of activity.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provision is made on the basis of one session a week or every two weeks and that in each session, 1 instructor works with 8 to 12 peer counselors.

In the step of execution and evaluation, finally, this study carried out a preliminary

survey where for testing purposes, the draft program was applied to 64 peer counselors who were working with students in their 1st to 3rd grades of 1 middle school in Seoul or 2 ones in Busan. Prior to the application, information about the testing procedure and period of that program were provided to teachers who were being in charge of Wee Class at those schools. And then, the study selected 64 students of the middle schools as its participants, and randomly divided them into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each consisting of 32 members. In order to test the effect of the program, this research measured both of the groups in terms of moral distraction, how to cope with cyber bullying and empathy ability. After that, the pre- and post-tests were made to calculate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values for each measure. In association, the analysis of covariance(ANOVA), where scores from the pre-test were designated as covariates, were conducted to fin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each of the variables that were scored here, in comparison to the control group.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peer counseling program for cyber violence prevention, more exactly, the draft program devised in this study helped the counselors as middle school students become less morally distracted, better reactive to cyber bullying and higher in empathy ability. With taken into serious consideration the results of testing the effect of the program, evaluating satisfaction with program participation and assessing each session of that program and based on audit opinions from 2 peer counseling experts, this study modified or complemented the draft version into the final one.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s finally developed program could provide schools, youth counseling welfare centers or any other concerned authorities with educational information that they can apply to peer counselors in a practical, realistic way and because that program could emotionally support adolescents, whether they are offenders or victims of cyber violence from peers, and help them solve the problem. By the way, the study has some limitations, which should be overcome by repeatedly testing the effect and feasibility of the program while applying it in a continuous way.